

〈宗訓〉

忠孝 · 德禮 · 勤謹 · 恭儉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 우애하고 덕을 닦고 예의를 익혀 남을 존경하며 부지런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검소한 삶을 살자이다.

清州韓氏報

發行人 韓瑀洙
編輯人兼 韓東元
主 幹
印刷人 韓範東

한영인쇄사 041-563-7474

(우 : 110-179) 서울시 중로구 내수동 167 세종로 대우빌딩 북합동 602호

홈페이지 : 청주한씨

☎ 720-6370~1 FAX : 720-9215

명숙총리, 공관으로 종친회 중진들 오찬 초청 현수회장, 80만 종친의 이름으로 축하패 증정



종친회 중진 초청 오찬회 명숙총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앙종친회(회장 瑀洙) 중진 20명은 지난 9월9일 정오 국무총리 明淑일가의 초청으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을 방문, 오찬을 함께 하면서 약 2시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덕담(德談)을 주고 받으며 일가간의 정의(情誼)를 나누었다.

현수회장은 오찬에 앞서 명숙일가가 지난 4월20일 한국 헌정사상 첫 여성총리로 취임하여 우리 청주한씨의 명예를 크게 빛냈고, 초대 여성부장관, 환경부장관, 2선의 국회의원 등 많은 요직을 역임하면서 국가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재임중 국민들로부터 칭송받는 업적을 남기는 명총리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의 축하패를 80만 종친의 이름으로 증정했다. 명숙총리는 초청인사말을 통해 “매일매일 공부에 쫓겨 비상이 걸린 상태여서 집안 어른들을 진작 모시지 못하고 오늘에야 모시게 되어 송구하며, 이렇게 축하해주신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하고 “한씨총가의 명예와 뒷받침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를 이끌어갈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소신의 일단을 밝혔다. 명숙총리는 이어 만인자상(萬人之上)의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언급 “이 자리에 와 보니 너무나 힘은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장관을 할 때는 한 분야의 일만 챙기면 되었으나 총리는 각 부처간의 상이한 업무들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격부”라고 취임 5개월간의 소회를 밝히면서 “특히 요즘은 대통령께서 외무부에서 너무나 바쁘며, 아저도 헌법재판소장 표결관계로 하루종일 국회에 나가 있었다”고 말했다. 현수회장은 방분일가들을 일일이 소개한 후 답사를 통해 “다방한 공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며, 헌정사상 첫 여성총리로 취임하여 한분을 빛내 주신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축하한다”고 말하고 “한분에서 조선조 500년을 통해 여섯분의 영의정을 배출한 이후 처음으로 국무총리 재임중 유연하고 모성애 같은 부드러운 포용력으로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타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총리가 되어 청주한씨의 명예를 더욱 빛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명숙일가가 한분의 딸로서 위업을 남길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총리의 건강을 위해 박수를 보내자는 현수회장의 제의를 받아 장내는 만장의 박수소리로 축복이 가득했다. 이어 相繼(중남도회장)일가는 「송(頌) 한명숙국무총리 취임, 재하의 한분송시(褒勳)회를 명숙일가에게 증정했으며, 명숙일가는 “송시의 내용들이 모두 좋아 마음에 든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송시 2편

이후 오찬을 하면서 장내는 화기애애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덕담과 환담들이 오갔으며, 명숙총리로부터 건배사

부탁을 받은 甲洙(고분)일가는 “명숙총리가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100명의 여성지도자 순위에서 68위에 오른 것은 개인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우리 한분의 큰 영광이며, 앞으로 한국에서 제일 가는 총리가 되고, 영국의 대척수상처럼 되어 내년에는 20위, 30위 안에 드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것을 담아 축배를 들자”고 건배를 선창했다. 자유로운 환담에 들어가자 명숙총리는 “오늘 스트레스 없는 식사를 처음으로 해보는 것 같다”면서 시조묘역, 선조들의 이야기, 장학기금조성 등 총사(宗事)에도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百贖(분정공파회장)일가가 “성남 율동공원에 있는 분정공묘역 재실신축공사가 오랫동안의 난제들이 해결되어 어제 9월8일부터 시작되었다”고 경위를 설명하자 명숙일가는 “어려운 일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분양봉의 18대 손인데 그 동안 묘소에 한번도 가보지 못해 틀을 내서 한번 가 봐야겠다”고 말했으며, 이를 받아 총사에 밝은 益賚(자분 위위)일가가 분양공 후손들에 대한 내력을 설명하기도 했다.

현수회장이 “늦었지만 시조묘를 찾아 총리 취임 고유제(告由祭)를 지내야 하지않겠느냐”는 의향을 타진하자 명숙총리는 “취임 후 또는 축하행사, 환영 행사를 사양해왔다. 선거, 정치와 관련시키는 경우가 많아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웃으갠소리로 총리직을 떠난 후에 축하해달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했다. 명숙총리는 또한 “취임 초기에는 언론들이 여성총리는 약할 것이고, 얼굴마담 역할을 할 것 아니냐는 보도를 하여 불쾌했으나 신경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인지에 역점을 두고 양심적으로 진실하게 일을 해왔다”고 밝히고 “취임 후 체중이 줄어든 정도로 격부일 뿐 아니라 하루 24시간이 모자랄만큼 너무나 바쁜 자리여서 하루가 30시간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陽命(상임고분), 翕天(삼계위원장), 五作(부산사회장), 泳教(진북도회장), 星燮(중앙회부회장)일가 등이 많은 덕담을 주고 받았다. 약 2시간동안의 모임이 끝난 뒤 명숙총리는 앞마당까지 내려와 일가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아쉬운 작별의 정을 나누었으며, 임원들은 공관을 떠나면서 한결같이 명숙일가의 안녕과 명총리가 되어주시기를 기원했다.

중앙종친회는 지난 8월26일 프라자호텔에서 약 170명의 일가들이 모인 가운데 명숙일가를 초청, 국무총리 취임 축하모임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총리의 긴급한 국정일정 관계로 갑자기 취소된 바 있다.

중앙종친회 창립 60주년 / 청주한씨보 창간 30주년

기념사

중앙종친회장 瑀洙



올해 명숙년은 청주한씨 중앙종친회 창립 60주년과 청주한씨보 창간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80만 일가들과 함께 영광된 우리 한분(韓門)에 축복을 보내며, 종친회와 총보(宗報)의 부강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특히 본인으로서 중앙종친회장 재임중에 이와 같은 뜻 깊은 기념일을 맞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60년을 돌이켜 보면, 대내외적으로 너무나 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역대 중앙회장들과 각급 임원들, 그리고 전국의 80만 일가들이 숭조논목의 애종(愛宗)정신으로 협동하고 동참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종친회 조직과 총보를 갖게 한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함께 치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8 · 15광복 직후의 혼란기인 1946년 10월30일(음력 10월6일 · 1976년부터 음력 10월1일로 변경) 세항일에 창립된 중앙종친회는 8 · 9 · 10대를 연인한 熙錫 회장이 8대회장으로 취임한 74년 이후부터 시조묘역 정비사업, 재실 증건, 4위 단 설단, 청주한씨사감(史鑑)과 총보 발행 등 총사(宗事)가 서서히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90년대에 들어서는 6교대동속보 반질(頒發), 시조묘역 진입로(威襄路) 확장포장, 시조묘역 성역화사업 착수, 청주한씨 유사보감 발행, (재)청한장학회 설립 등 총사 추진이 본격화되어, 2000년대에는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여 행정시스템을 전산화하고 7교인터네티한글대동속보를 구축하는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창립 후반기의 광범위한 사업 추진과 업적은 추진주체들만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는 선조들이 이룩해 놓은 삼한갑족, 명분거족이라는 명예와 긍지, 가깝게는 格畵(조대 · 전검찰총장), 圭復(2대 · 전충북지사), 瑤錫(3대)일가가 회장을 역임한 28년간의 창립 전반기 임원들과 수 많은 일가들이 격동기의 고난을 극복하면서 전국적으로 종친들을 결집시키고 조직화하여 동참하게 하므로써 숭조논목의 뿌리를 내리게 한 인프라(기반구조 · Infrastructure)가 없었던들 이루어질 수 없는 지적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청주한씨가 명분거족으로 지존만대 면면히 이어져 내려가기 위해서는 오늘의 우리들 80만 일가들도 가승적(家承)으로 총사에 적극 동참하여 선대가 물려준 업적에 버금가는 든든한 기반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청장년 후손들의 조직화된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분거족으로서의 청주한씨의 미래가 청장년 후손들의 두 어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에 자상(至上)의 목표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시조세향 때 시조묘역에 장학기금 20억원 달성 기념비를 건립했습니다만, 앞으로 50억원 이상의 기금으로 장학회관을 건립하려는 계획은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의 핵심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7교인터네티한글대동속보의 완결, 역사전시관과 시조성역화사업의 추진, 총보간행사업의 내실화와 독립체산계의 확립, 선대의 유업 · 유적 발굴사업 등도 청장년 후손들이 계승하여 발전 시켜야 할 기반구축사업의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선대의 유덕에 힘 입어 삼한갑족, 명분거족이라는 명예와 긍지를 갖고 살아오면서, 근세에 들어서도 한명숙총리를 비롯 각 분야에 걸쳐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한 수많은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버티고 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선대들이 물려준 공고하고도 훌륭한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 60주년을 황혼을 바라보는 연륜입니다만, 영속적인 종친회 조직에서의 60주년을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이 출발점에 서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청장년 후손들에게 든든한 ‘인프라’를 유산으로 물려줄 새로운 다짐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조묘역 성역화와 역사전시관 건립, 시조세향 참사, 장학회관 건립 등 구체적인 여러 사업을 통해 숭조논목하고, 화합하고, 총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총훈(宗訓)을 충실히 실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종친회 발전을 위해 낡은 인습을 과감히 개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 발전합시다.

끝으로 80만 일가들의 강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총리 리비아 등 4개국 순방

자원외교·세일즈외교로 성과 한아름



국무총리 明淑일가가 지난 9월19일부터 8박9일간의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 리비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동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4개국을 순방, '자원외교' 성과를 한아름 안고 27일 귀국했다. 이번 순방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급성장중인 이들 국가와의 우호관계를 토대로 석유와 가스 등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한국 기업들의 진출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리비아에서는 카다피 국가원수를 만나 리비아가 추진중인 대규모 원유 파이프라인 설치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카자흐스탄에서는 민관합동 석유화학 발전 태스크포스팀 구성에 합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방북에서는 우리나라 장기공급 등 8개 기본합의서 체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는데, 특히 이번 순방에서는 에너지와 자원외교에 그치지 않고, 풍부한 오일달러를 기반으로 수요가 늘고있는 건설과 플랜트, IT, 교육, 문화 등 다각적인 면에서 외교협력의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고려인 강제이주 70주년을 한해 앞두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동포와의 초청간담회를 잇달아 여는 등 그동안 소외돼왔던 해외동포 포용의교도 적극적으로 벌였으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구한말 항일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왕산 허위선생의 장손녀 허로자 할머니를 만나 이번 추석에 한국을 다녀가도록 초청하기도 했다.

元教일가, 사진작가로 활약

사진전에서 금상, 가작 입상



元教일가가 지난 7월7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에서 작품 '어부의 어망 점검'으로 가작에 입상했으며, 이어 9월16일에는 한국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가 주최한 전국 사진공모전에 작품 '작업'을 출품, 영예로운 금상(金賞)을 수상했다. (사진·수상 후 가족들과 기념촬영) 元教일가는 지난 수년간 송진회 각종 행사의 보도용 사진과 기념사진 촬영에 사비를 들여가며 봉사해오다가 올해초부터 사진작가 수업을 시작, 불과 반년여만에 전국규모의 사진전에서 입상을 거듭할 정도로 작품활동이 활발하다.

〈頌 한명숙 국무총리 취임〉

智仁稟性出於天總幸高名頌後前
슬기롭고 어진 타고난 성품은 하늘에서 났으니
총리의 높은 이름을 앞뒤에서 칭송하도다
舉世均蒙明政赫生民共謂大謀賢
은 세상이 모두 밝은 정사의 빛남을 받고
백성들은 함께 큰 계교의 어짐을 칭송하도다
祖先種德焉無蔭躬自存誠必有緣
조상들의 심은 덕이 깊으니 어찌 음덕이 없으리오
몸소 성심을 다하니 반드시 인연이 있도다
唯願勿忘伊呂志理韓巨業永遺傳
오직 옛날 은나라의 이윤과 수나라 강태공의
지혜로운 뜻을 잊지말고 대한민국을 다스린
큰 업적을 영원히 전하소서

충남회장 相旭

청주한씨보감(수첩) 제작에 임원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중앙총친회가 발간을 준비중인 '청주한씨보감(寶鑑)'은 2006년 9월말 현재 자료수집에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감 임원록에 게재할 사진과 관련자료를 보내지 않은 임원들이 있어 애로가 많습니다.

아래와 같이 다시 한번 촉구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요청자료 : 사진, 한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지파명(支派名).
2. 접수마감 : 2006년 12월 30일
3. 접수 및 연락처 : 청주한씨중앙총친회 ☎ 02-720-6370~1
4. 기타사항 : 중앙총친회 제22대 임원으로 선임된 분중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주소 등 변경사항이 있는 분은 사진과 함께 변경사항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내용 : 계대표, 왕비록, 상신록, 부마록, 항렬제(行列字)대조표 등.

청주한씨중앙총친회

시조태위공 병술년 세향참사 안내

- ▶일 시 : 2006년 11월 21일(화·음 10. 1) 오전 11시
- ▶위 치 : 충북 청원군 남일면 가산리 시조부군 묘정
- ▶참석범위 : 국내외 거주 청주한씨(남녀노소) 전 총원
- ▶식전행사 : 효자·효부상 시상
- ▶의 레 : 시조세향, 4위단 세향 봉행

우리 선조님들께서는 자신보다 가문을 위해 사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훌륭한 선대의 유훈을 받들어 지손들에게 전승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참사하여 시조할아버님의 음덕을 기리는 귀중한 세향 제전이 되도록 가족들과 함께 빠짐없이 시조묘역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중교통 이용 안내】

청주시 가평동 고속버스(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200번 좌석버스(미원행) 또는 300번 일반버스(문의행)를 타고 고은삼거리에서 하차하여 약 1km를 걸어 공군사관학교 비행장 정면 앞에 오시면 시조부군묘소가 보입니다.

시조묘역에 도착한 후에는 경건하고 엄숙하게 세향을 봉행할 수 있도록 모든 송원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세향후에는 준비된 음식으로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될 것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안내】



재실 : 043-298-4025

“많은 투고를 기다립니다”

「청주한씨보」는 한씨일가들의 갖가지 정보를 전하는 소식지입니다. 따라서 많은 정보가 게재될수록 유익한 좋은 소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지역과 각 송파의 행사, 한씨에 얽힌 정보, 일가들의 선행과 효행등에 관한 많은 투고 바랍니다. 1편의 기사량은 A4용지 1매 내외로 하고, 길이도 1매만을 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사에는 관련인사들의 이름, 행사일과 장소, 행사내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관련사진도 함께 행사가 끝나는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기업, 자영업을 경영하거나 전문직을 갖고 계시는 일가분들과 그 밖의 모는 일가분들 중에서 송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한 분께서는 중앙총친회 사무국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 취재하여 홍보기사를 게재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보 편집실〉

중앙총친회 2006년도 이사회 개최 안내

중앙총친회 2006년도 이사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06년 12월 8일(금) 오전 11시
- ▶장 소 : 프라자호텔별관 지하층 그랜드볼룸(서울시청 맞은 편)
- ▶참석범위 : 중앙총친회 이사
- ▶안 건 : 1)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
2) 기타 사항

사진으로 보는 시조묘역과 유적들



▶**시조묘(始祖墓)** : 시조부군(휘란·諱蘭)과 배위(配位) 송(宋)씨의 합조(合兆)이다. 청원군남일면가산리 가산(駕山) 남쪽 건좌손향(乾坐巽向)이며, 속리산이 갑방(甲方:정동에서 북으로 15도의 방위를 중심으로 한 15도안의 방향)으로, 이르기를 화룡고조(回龍顧祖산의 지맥이 뺨들어서 본산과 맞섬)라 하여 길지(吉地)라 한다. 묘비는 숙종 30년(1704)에 개수(改鑿)되었으며, 비문은 후손 좌의정 이모가 짓고, 형조판서 光晷가 썼으며, 한성좌윤 德弼이 전(篆)했다. 충청북도 기념물 제72호이다. 시조부군은 928년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의 견훤을 정벌할 때 군량미를 지원하고 전공을 세워 삼중대광개국벽상공신(三重大國開國壁上功臣)에 녹훈되었다. 벼슬은 문하태위(門下太尉)에 올랐으며, 시호는 위양(威襄)이다



▶**4위(4位)선조 추모단** : 4위선조는 시조하 2세조 옹호군 교위공 휘 영(穎), 3세조 별장 동정공 휘 상휴(尙休), 4세조 상의 직장공 휘 혁(奕), 5세조 신호위 상장군 휘 희유(希愈)이다. 4위선조 묘소는 실전(失傳)되었으며, 휘와 직함만이 보책에 기전될 뿐, 배위(配位) 또한 실전된 상태에서 시조묘역내 동쪽에 4위 추모단을 모시고 해마다 시조세향일에 시향(時享)을 모행하고 있다.



▶**세일재(歲一齋)** : 재실은 숙종 14년(1688) 실호했던 시조묘소를 다시 찾아 모시면서 세워졌으나, 1788년 중건(重建)하면서 비로소 세일재라고 현판했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중수, 중건을 거듭하여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무농정(務農亭)** : 이 정자는 태위부군께서 창건하여 기거하면서 농업을 권장하고 제세경륜을 연마하던 도장으로 방정(方井)과 함께 공(公)의 여향(餘香)이 연면히 흐르고 있는 유적이다. 1천여년의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소재마저 알 길이 없었으나 1688년 후손 根이 병마절도사로 부임하면서 무농정 자리를 찾아 비석을 세워 표징해 두었다. 이를 근거로 1949년 방정리 중종의 발기로 전국의 중문들이 헌성하여 정자를 중건했으나 6·25동란 때 훼손되어 다시 1988년 중앙중친회의 주관하여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충청북도 기념물 제85호.



▶**신도비각(神道碑閣)** : 신도비는 당초에는 없었으며, 1768년(영조 44년)에 처음으로 세워졌다. 여러차례의 개·보수와 단청으로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충청북도 기념물 제72호.



▶**방정(方井)** : 충청북도 지방기념물 제84호. 방정은 무농정 아랫 동네 앞에 위치한 우물로 태위공께서 이 고장에 터를 잡으면서 음료수와 용수로 사용했던 유적이다. 정방형으로 축조되었다고 해서 방정이라 불렀고 동네 명칭도 방정리로 호칭되었다. 청주읍지 고적조(古蹟條)에는 후백제의 견훤을 정벌하기 위해 이 곳을 지나던 고려 태조 왕건의 10만 대군이 이 우물을 이용했는데 조금도 수량의 부족함이 없었다 하여 방정이라는 정호(井號)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진촬영 : 元教)

임진왜란 때 아들에게 보낸 석봉의 친필서한 공개

동방의 서성(書聖) 韓石峯선생이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3년 초 아들 敏政에게 보낸 친필서한 「민정평서」(敏政平書)가 대대로 소장해온 석봉의 12대손 炳彩일가에 의해 최근 공개되었다.

1592년5월 일본의 침공을 피해 의주에 파친한 조정을 따라 선조(宣祖)를 측근에서 보필하던 석

봉은 다음해 1월 이어승 제독이 지휘하던 명나라 구원군이 퇴각하는 일군을 추격, 서울 근교 벽제관 전투에서 고전하고 있을 때 종사관으로 접부사 韓應寅 판서와 함께 활동하면서 명나라군의 서울 진격을 유도하고 있었다.

「민정평서」는 이즈음 쓰여진 것으로 긴박한 전쟁상황, 생활

고, 석봉의 충성심과 지극한 효심, 승조정신이 엿보이는 어휘구사 등으로 후손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겠다. 아래는 「민정평서」 원본

(한석봉선생 기념사업회 제공)

寄 敏政平書
 奴馬送後送不還未知好歸耶 吾今來
 平壤矣 李提督將向京城
 而吾爲韓判書接待從事官
 循之應過松京故鄉矣 告于汝奴馬未
 之發送姑留待 吾行亦可
 祖親爲可兄主及弟等前亦告之 吾行之
 還鄉欲拜
 先塋同生皆不可不會 此意汝須知 而善告
 處之救資米得之汝亦率 先來
 興義等處待之甚可 所着春服
 告于汝
 母備之而恐未得所造也 汝亦從便得助
 尤可汝
 祖親前忙未別狀此意亦達 今因開城
 府人傳之矣 知之

三月二十一日 韓石峯

〈한글로 번역한 편지 내용〉

민정(敏政)에게 소식을 전하고자 머슴을 보낸 뒤에 아직 돌아오지 않아, 궁금하구나. 이제독(명나라 장수 이어승)이 정성으로 향하기로 예정이 되어있어 나는 반점사(半健史)인 한판서(韓應寅)와 함께 종사관으로 이 제독을 수행하기 위해 고향인 개성을 지나가게 된다. 집안 어른께 알리고자 이 편지를 너에게 보내니 머슴이 미처 도착하지 못하면 네가 어머니와 함께 나의 일행을 기다라는 것이 좋겠다. 나는 우리 일행이 고향을 지나가는 기회에 선영에 들려 함께 성묘를 하고자 한다. 이 뜻을 형님과 동생들에게도 미리 알려 선영에서 꼭 만나볼 수 있도록 하라. 이 뜻을 네가 반드시 알고 있다가 차질이 없도록 처리하기 바란다. 쌀밭이나 구해 가지고 네가 머슴을 데리고 흥의(金川의 옛이름) 근처에 미리 와서 기다라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내가 입을 봄옷을 장만하도록 네 어머니에게 알려야겠는데, 옷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여 도착할 때까지 마련되지 못할까 걱정이 되는구나. 어머니께서 옷을 편히 장만할 수 있도록 네가 도와드라는게 좋겠다.

분량하여 집안 어른 앞에 별도로 편지를 올리지 못함이 민망스러울 뿐이다. 이 뜻도 네가 전해 올리도록 하여라. 자금 개성부에 종사하는 사람편에 이 글을 보낸다.



3월 21일 (1593년) 한석봉

相權일가, “익산쌍릉은 무강왕릉” 8·15 61주년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



중앙총친회 相權(익산·사진)부회장은 지난 8월15일 전북 소재 익산 대학 도서관에서 8·15해방 61주년 기념으로 열린 '독립운동 사료전시 및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익산 고대역사 왜곡과 사료 반환청구'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 각종 사료(史料)를 제시하면서 "익산쌍릉은 무강왕릉"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익산시보훈지청과 익산독립운동

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이날의 학술회의에서 상권일가는 후조선(後朝鮮), 마한(馬韓)의 역사와 관세음현기의 역사성 등을 제시하면서 "고려사절요(節要)는 정사(正史)이며, 서동설화(童童說話)는 마한의 건국신화"라고 설파, "백제 부왕의 익산 천도(遷都)는 사실(史實)이다"라고 주장했다.

상권일가는 이어 보학적(譜學的)

고찰까지 곁들여 가면서 '사적(史蹟) 제87호 익산쌍릉의 석물(石物) 철거는 익산시의 복귀'라고 규탄하고 "익산시는 쌍릉역사 짜맞추기를 중지하고 철거한 석물을 원상대로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중앙총친회에서 春植, 百賸, 相瑞부회장과 奎華상부, 南玉총부가 참석했다.

한편 마한 기준왕(箕準王)유적비 건립회 회장직을 맡고있는 상권일가는 지난 8월4일 "한씨조선(箕子조선) 41대 기준왕이 옛 금마(金馬)현 익산의 태봉산(胎峰山) 태봉사(寺)에서 국태민안을 발원(發願)하여 얻은 세 아들의 태(胎)를 묻어 태봉산 태봉사라고 명명되었다는 전설이 있어, 이 성지(聖地)에 기준왕 유적비를 건립하기로 했으며, 태봉사 주지 영산스님께서도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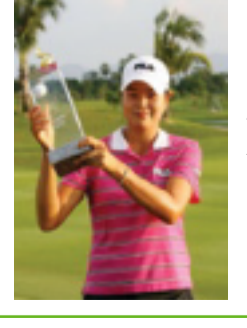
고려통일대전 정전 상량식 거행 역사문화 재현사업으로 조성

사단법인 고려역사선양회(총재 차화준)가 고려역사문화 재현사업으로 조성하고 있는 고려통일대전(大殿)의 정전(正殿) 상량식(上樑式)이 지난 7월 27일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통일동산 중앙공원내 현장에서 2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고려역사문화 재현을 위해 건립되는 대전은 12,463평의 부지에 160평 규모의 정전과 고려역사관(1,830평), 충신각(忠臣閣), 공신각(功臣閣) 등을 비롯하여 고려통일대전의 여러 부속건

물들로 이루어지는데, 충신각과 공신각에는 고려의 개국공신인 우리 청수한씨의 시조 태위 위양공·휘란(太尉 威襄公·諱 蘭), 태사 정신공·휘언공(太師 貞信公·諱 彦孫), 사숙공·휘약(思肅公·諱 濶), 서원군·휘방신(西原君·諱 方信), 서제공·휘천(愨齋公·諱 臧), 몽계공·휘철충(夢溪公·諱 哲沖) 등 여섯분 조상의 위패도 모셔지게 될 예정이다. 이날 상량식에는 중앙총친회 春植부회장과 奎華부회장이 참석했다.

회원일가 미LPGA 우승



프로골퍼 회원(사진)일가가 지난 22일 태국 촌부리 아마타 스프링CC에서 열린 미LPGA 투어에서 3라운드 함께 14언더파 202타를 기록, 2위를 5타차로 누르고 올 시즌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회원일가의 이번 우승으로 한국 선수들은 올 시즌 미LPGA에서 10번째 우승을 거두어 현재까지는 국가별 최다우승을 기록 중이다. 다음은 미국(7승), 멕시코(5승), 호주(4승), 스웨덴(3승) 순위로 되어있다.

역대회장 재임중 주요업적

▲초대 格晩(1946~50), 2대 圭復(1950~54), 3대 璿錫(1954~74, 4·5·6·7대 연임)회장이 재임한 1946년부터 74년까지의 전반기 28년간은 사업실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 세분 회장은 광복(1945년) 직후의 혼란기에 종친회를 창립하여 1950년의 6·25동란, 1960년의 4·19혁명, 1961년의 5·16혁명 등 혼란과 격동의 와중에서도 전국적으로 종친들을 결집시키고 조직화하여 후반기의 역대회장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공로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8대 熙錫(1974~83, 9·10대 연임)
 ①4위설단 건립(예빈윤공파 春植회장, 재일 영구일가 협찬) ②세일제 승진 ③청주한씨 사감(史鑑) 발행 ④종보 '청주한씨보 발간' ⑤시조묘소 입구 계단공사 완공(부산시종친회 永錫회장 헌성)

▲11대 陽命(1983~86, 12대 연임)
 ①종훈(宗訓) 제정 ②'청주한씨보' 10년사 간행 ③시조 유희비 건립(충북영동군황간나곡리에 부지를 매입하여)

▲13대 建洙(1987~93, 14·15대 연임)
 ①6교대동족보 편찬 착수 ②부농정 준공식 ③부농정 지(址), 방정(方井), 시조제단비 등 지방문화재로 지정 ④기성전(箕聖殿) 삼문(三門) 승진(충북괴산군도안면)

▲16대 陽命(1993~94)
 ①제6교대동족보 발행하여 반질(頒秩) ②중앙종친회 사무실 확보, 이전(세종로대우빌딩 복합동602호, 이 사무실은 예빈윤공파 春植회장이 자비로 대납하여 분양받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17대 珮洙(1995~2001, 18·19대 연임)
 ①시조묘역 성역화사업 착수하여 시조묘역 표석 수립 ②시조묘역 흉수 피해 복구 ③대전 뿌리공원에 한씨조각상 수립(대전시종친회 협찬) ④세일제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하고 잔디밭, 정원석 조정 등 완료(珮洙회장이 2억원 헌성) ⑤청주한씨 유사보감(遺事寶鑑) 발간 ⑥6교대동족보 증수보 발행 ⑦청주한씨 역사영상록(비디오)제작 ⑧청한장학회 재단법인 설립허가 취득 및 청한장학회 후원회 결성 ⑨시조묘역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자금 3억5,000만원 조성(和甲의원, 英洙의원 기여) ⑩1988년 중앙회 부회장 겸 서울시회장으로 재임하면서 6교대동족보 편찬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의도 신승빌딩에 사무실을 확장, 이전토록 배려하여 임차보증금과 3년간 월세비 전액을 헌성 ⑪1991년 서울시회장으로 취임, 재건총회를 개최한 후 93~94년 2년간 22개구 종친회를 결성하여 1964년 발족이후 유명부실했던 서울종친회를 활성화.

▲20대 英洙(2001~02)
 ①청주한씨 역사영상록 보급 ②시조묘역 진입로(위양로) 확장 포장공사 완료

▲21대 珮洙(2006~현재 22대 연임중)
 ①장학회관 건립안 만장일치 의결(임시총회) 및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②종친회 사상 최초로 미국 3개지역 순방, 종친회 격려 및 조직 독려 ③제7교인터넷한글대동족보 편찬 착수 ④기존 청한장학기금 10억원에 2개월의 단기간내에 10억원을 추가로 모금, 20억원을 조성하고 시조묘역에 20억원 달성 기념비 건립 ⑤시조묘역 진입로(위양로) 확장·포장 연장공사 추가자금 2억원 조성.

화성시 3계지구 종친회 7월 월례회의 珮洙 회장, "인터넷족보에 적극 참여해 달라"



7월19일 오복정식당에서 월례회의
 경기도 화성시 3계지구 종친회(회장 학수)는 지난 7월19일 오전 40여명의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복정식당에서 7월 월례회의를 열고 친목을 다지는 한편 종

친회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학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앙종친회장이 우리 종친회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격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며, 종친회의 활성화와 중앙종친회의 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수중앙종친회장이 내빈으로 중앙종친회 珮洙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시조세향일을 공휴일이나 일요일로 변경하려는 것은 직장인, 사업인, 학생 등 젊은 후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청장년회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그들이 종친회를 활성화하여 한분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중앙종친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한글대동족보'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주한씨 중요사로 문화재 신청키로 중앙회, 일가들 소장사료사본 제출 요망

청주한씨 중앙종친회(회장 珮洙)는 기자조선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삼한갑족, 명분거족으로서 선조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큰 공을 세운 역사적 업적들을 발굴, 국가적인 「문화재」로 지정받도록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일가들께서는 소장하고 있는 가본이나 조상의 귀중한 유품, 유적들이 무의미하게 사장(死藏 또는 私藏)되지 않고 「문화재」로 지정받아 훌륭했던 조상들과 한분(韓門)에 대한 평가가 한 단계 격상(格上)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에 대해 ①건조물, 전적, 서적, 고분서, 회화(繪畵),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考古)자료 ②연주,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등 유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가들 개인이나 각 분승에서 소장하고 있는 귀중한 사료(史料)들이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어, 추진중인 「청주한씨 역사전시관」에 전시된다면 청주한씨의 훌륭했던 발자취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연구보존될 뿐만 아니라 후손들은 선조들의 빛나는 업적을 귀감으로 삼을 것이며, 밖으로는 국내외 학계에도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각급학교의 역사교육장이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를 깊이 새기시고 일가들 개인이나 각 분승에서 소장 보존중인 사료나 유품들이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오는 12월 30일까지 중앙종친회에 사본(寫本)을 보내주시거나 협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한씨중앙종친회

1년에 2만원만 보내주시면 '중보'는 독립재산이 됩니다

청주한씨 80만 일가들의 소식지로, 화합의 마당으로 오랜 풍상을 겪어온 중보(宗報) '청주한씨보'는 올해 11월1일로 창간 30주년을 맞습니다. 30이립(而立)이라고 하나 중보는 아직도 재정적으로 독립재산이 되지 않고 있으며, 내용면에서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중보는 일가들의 '현성'(獻誠)으로 유지되고 성장해가는 한분(韓門)의 유일한 소식지(消息紙)로, 일가분들이 1년에 단 한번 보내주시는 2만원의 '중보비'가 명맥을 이어주는 양식(糧食)입니다. '중보'가 중앙종친회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발행될 수 있도록 일가분들이 도와주시지요. 이제 전면 '컬러(color)로 그 모습도 날로 화려하게 개선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송금하려면 귀찮은 점도 있을 것입니다. 각 시·군·구 종친회에서 모임을 가질 때 모아서 단체로 보내면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체로 중보비를 보낼 때는 모임의 사진과 성함들을 함께 보내주시면 중보에 홍보도 헤드리겠습니다.

각 지역, 각 종파의 임원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앞장 서서 일가분들을 독려하신다면 중보는 한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보는 홀로 서고 싶어 합니다.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계좌번호 : 청주한씨중앙종친회 국민은행 009901-04-016341
 '청주한씨보' 발행인 한현수(중앙종친회장)
 편집인 한동원(중보담당 부회장)

청주한씨중앙종친회 창립 60주년 및
 중보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영인쇄사 대표 : 한범동

종친회 창립 60주년, 종보 창간 30주년 축하회 및 송년회 안내

중앙종친회 창립 60주년과 '청주한씨보' 창간 30주년 축하회 및 2006년도 송년회를 아래와 같이 거행하고자 하오니 일가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06년 12월 8일(금) 오전 11시
- ▶장 소 : 프라자호텔별관 지하층 그랜드볼룸(서울시청 맞은편)
- ▶참석범위 : 국내외 거주 청주한씨(남녀노소) 전 종원
- ▶축 하 연 : 공로상 시상 (종친회와 종보 발전에 기여한 일가)
- ▶송년 회 : 여흥과 장기자랑 등이 있으며, LCD TV 등 고가의 각종 가전제품과 주방세트 등이 다수 준비되어 있음, 경품, 기념품으로 준비되어 있음.

“속지마십시오”

중앙종친회를 사칭하면서 “족보” 등을 강매하는 사기꾼들의 전화가 걸려오면 즉각 고발하십시오

최근 중앙종친회를 사칭하면서 '청주한씨족보' 제작비용과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집단이 일가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으니 절대로 속지마시기 바랍니다. '청주한씨족보'는 현재 중앙종친회가 일가들의 수단(收單)을 받아 제작중인 '인터넷한글대동족보'만이 정통성을 갖는 유일한 것입니다.

중앙종친회에서는 전화나 팩스를 통해 일가들에게 '족보' 제작비용이나 구매를 강요하는 일이 없으니 절대로 속지마시고, 중앙종친회를 사칭하는 사기꾼들의 인적사항이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고발하거나 중앙종친회에 즉각 연락해 주십시오.

이러한 사기 집단들은 고발 등으로 강력히 대처하는 일가들의 협조에 의해서만이 예방할 수 있고, 일망타진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종친회 전화번호는 (02)720-6370~1 입니다. 전화번호를 물어보아 이 번호와 다른 전화번호를 대면 그들은 바로 사기꾼들입니다.

청주한씨 중앙종친회

「청주한씨 '인터넷' 한글대동족보」

2006년 12월말까지 접수된 수단은 2007년 1월중(5차) 개통됩니다. 수단비는 8천원 입니다. 사진도 입력됩니다. 입력수수료는 1매당 10,000 원 입니다.

'인터넷족보'에 조상의 사진, 가족사진, 가족들의 인물사진, 가문과 관련있는 유적사진 등 본인들이 원하는 어떠한 사진도 입력하여 자손 대대로 볼 수 있습니다. 10cmX15cm=4 인치X6인치로 어른 손바닥 크기의 사진을 족보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족보' 수단지 기재요령

(1) 연도 표시

서기(西紀)로 년, 월, 일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도를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6교대동보'에 실린 간지(干支)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예) 1980년2월15일 생 1980년2월15일 졸.

(2) 학력·경력 및 상훈 기재방법

산청자의 의사에 따라 본인이 입력하기를 원하는 주요학력·경력 및 상훈(勳章) 종류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묘 기재방법

예) 묘(墓)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내곡리 산8번지 뒷산 선영(先塋) 을좌(乙坐) 합평(合甕) 또는 쌍분(雙墳)

(4) 부인 기재방법

예) 배(配) 김혜영(金惠英) 김해인(金海人) 부친 莢朱 생, 졸 학력 경력 묘 등 기재방법은 남편과 동일합니다

(5) 부(夫) 기재방법 (시집을 간 딸 이름은 그대로 둔다)

예) 딸 이름 옆에 부(夫) 김태식(金泰植) 김해인(金海人·사위의 생, 졸, 경력사항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으로 기재하며 아들과 딸외손자와 외손녀)이 있어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6) 자(子), 호(號) 기재방법 (자와 호가 있는 경우)

예) 자 영후(英鎬) 호 무봉(無豐)으로 기재합니다.

(7) 사진 제출 방법

누구 사진인지 구분하기 위해 사진 뒷면에 사진의 주인공 이름과 아버지 이름 파(派) 세(世)를 기재하고, 사진 설명이 필요한 경우 20자 이내로 간단히 기재합니다

※선조의 유적지, 묘소, 재실, 교지, 훈장, 표창장, 개인 및 가족사진 등도 제출할 수 있으며, 묘소와 재실은 주소, 훈장은 훈장명을 기재하십시오.

(8) 수단용지는 홈페이지(청주한씨 또는 www.cheongjuhan.net) 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족보' 주요 기능과 특징

- (1) 직계·촌수 검색이 가능하며 이름 입력 즉시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2) 선조님의 업적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3) 국·한문을 혼용, 한자를 모르는 젊은 후손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4) 청주한씨 인구, 남녀, 이름, 파별 인구수 등 각종 통계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5) 선조의 모습, 유적 묘소, 재실 교지, 상장 부부, 가족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족보' 찾아가기 도움말

◆ 청주한씨중앙종친회 '홈페이지' 찾아가기

'인터넷' 주소창에서 청주한씨 또는 www.cheongjuhan.net 중 어느 하나를 입력하고 '엔터키'(Enter Key)를 누르면 청주한씨중앙종친회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여러 항목중 '인터넷족보'라는 항목을 '클릭'하면 '인터넷족보'를 볼 수 있습니다. 시도해 보시고 잘 되지 않으면 중앙종친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찾아 「인터넷족보」에 올립니다 중앙종친회가 일가들의 조상을 찾아 드립니다

현수회장, “족보 없으면 ‘뿌리’ 없는 자손 됩니다”

우리 청주한씨는 가자(箕子)조선과 마한(馬韓)을 거쳐 이어온 왕족의 후예로서 고려조와 조선조를 통해 수많은 왕비, 상신(相臣) 공신, 장상(將相)들을 배출한 명문거족입니다

따라서 우리 일가들은 누구나 몇 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훌륭한 조상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조상을 모셨음에도 너무나 많은 일가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뿌리'를 모르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중앙종친회는 현재 국내외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한글대동족보"를 80만 일가들의 후응 속에 빠른 속도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중앙회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조상의 '뿌리'를 찾아 '인터넷족보'에 올리는 일가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瑁洙중앙종친회장은 최근 종보 편집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청주한씨는 80만명에 달하는 대성(大姓)인데 대동족보에 등재되어있는 일가는 불과 10만명 미만이니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일가들이 훌륭한 조상의 '뿌리'를 모르고 있다"고 안타까워 하면서 "자손들에게 조상의 '뿌리'를 설명해줄 수 없었던 그동안의 비애(悲哀)를 자손들에게까지 대대손손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뿌리'를 찾

아 '인터넷족보'에 올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瑁洙회장은 특히 "수단(收單)과 함께 조상의 사진, 가족들의 사진 등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사진들을 '인터넷족보'에 올리면 대대손손 자손들이 '인터넷'을 통해 조상의 뿌리와 가문의 내력을 동영상으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족보가 없으면 대대손손 '뿌리' 없는 자손이 되니 모두가 나서서 모르고 있는 일가들에게 알려주어 '뿌리'를 찾아 '인터넷족보'에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앞장 서자"고 후소 했습니다.

'뿌리'를 찾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족보가 없거나 몰라도 선조님의 함자(衍字·이름)만 알면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종친회가 일가들의 '뿌리'를 찾아드리고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중앙종친회로 연락을 주시거나 방문해 주십시오.

(연락처) 청주한씨중앙종친회 '인터넷대동족보' 편찬위원회
(02) 720-6370 ~1, 9215(팩스 번호)

“예술 · 학술 · 문화 등 중생의 자랑스러운 잔치” 제8회 ‘2006 만해축전’ 8월11일부터 사흘간 대성황



만해선사

우리 청주한씨의 자랑스런 만해(卍海) 한용운(韓龍雲 · 1879~1944)선사의 얼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제8회 ‘2006 만해축전 (만해사상실천선양회 · 강원도 · 인제군 · 조선일보사 공동주최)이 지난 8월11일부터 3일간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만해대상 시상, 서예전, 백일장, 학술대회, 현대시조 100년 기념 ‘축제 한마당’ 등 분학과 사상, 미술과 공연 등 국내외가 아우러진 다채로운 행사로 성황리에 펼쳐졌다.

충남 홍성 태생인 만해는 1905년 불교에 입문한 후 불교사상가로, 독립운동가로, 시인으로 한국 근대에 큰 발자취를 남긴 선각자이다.

만해축전 이틀째인 12일 오후 입재식에서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총재 지



만해대상수상자들, 왼쪽 몽골대통령부인

관 스님(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은 법어를 발표, “만해! 그 이름 그대로, 이 축제는 예술분야는 물론 학술연구 등 인간문화의 전(全)장르를 주제로 함은 물론 공간과 세대, 계층과 군민(軍民) 그리고 국경마저 넘나들며 자유롭게 수행되는 여법(如法)한 중생의 잔치로서 더욱 자랑스롭습니다”라고 축전의 의미를 요약했다.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 벨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노벨문학상 수상자 월레 소잉카 시인, 달라이 라마 등 세계적인 인물들에게 시상되어 명실공히 국제적인 대상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해대상은 12일 오후 시상식에서 포교부문에 남바린 옹호 바야르 몽골 대통령(출름 오논 부인)이 대신해서 수상, 평화부문에 김지

하 시인, 학술부문에 권영민 서울대 교수, 분학부문에 로버트 핀스키 전 미국 계관시인과 황동규 서울대 명예교수(공·동수상), 실천부문에 박원순 변호사가 각각 수상했다.

11일 시인학교 입교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 만해축전은 각종행사를 알리는 현수막과 포스터가 만해마을 전체를 뒤덮은 가운데 축제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으며, 특히 ‘문인의 집’ ‘만해학교’ ‘서원보전(誓願寶殿)’ ‘만해문학박물관’ ‘님의 침묵 산책로’ 등 곳곳에서는 분예전시행사와 학술대회, 전시회 등이 잇달아 열려 만해의 얼과 평화정신을 기렸다.

제12회 만해제 홍성 생가지에서 거행



만해제에 참석한 일가들

卍海 한용운(1879~1944)선사를 추모하는 제12회 만해제가 지난 9월 30일부터 2일간 충남홍성군결성면 성곡리 생가지에서 수많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만해제추진위원회 주최 홍성문화원 주관으로 거행되었다.

琇洙중앙총회장 등 약 30명의

일가들(사진)도 참석한 만해제 첫날은 오전에 생가지에서 기념식을 거행한 다음 오후에는 추모의 노래와 승부, 만해의 유품 및 사진전시회, 추모 한마음 걷기대회, 백일장과 휘호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베풀어졌다.

이틀째인 10월1일에는 저녁 6시부

터 홍성문화원에서 ‘만해 문학의 밤’ 행사를 열고 만해 헌시, 시 낭송, 시조창 등 추모문화행사가 있었으며, 부대행사로 9월20일부터 10월 15일까지 부대(附帶)행사로 만해백일장, 시조경창대회, 연극, 만해 청소년 시인학교 등이 열렸다.

(사진 元勳)

昇洲고문, 세계전략회의에서 연설



외부장관을 지낸 중앙총친회 昇洲(사진)고문은 지난 9월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SS) 세계전략검토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전시작전통계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사하게 되면 한국의 안보는 앞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초대 수미대사를 지내고 현재 고려대 명예교수인 승주고문은 이 연설에서 “이제 한미동맹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고 “북핵문제의 해결은 한미동맹이 불확실하고 허약해지면 어려움이 배가된다”고 경고했다.

한전사장 竣皓일이 필리핀 공로패 수상



한국전력공사 사장 竣皓(사진)일가는 지난 10월 12일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부터 필리핀 전력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준호일가는 한전이 필리핀의 주요 역점사업인 농어촌 전화사업에 참여하여 260개 농어촌지역에 대한 전기 공급 지원사업을 완료하는 등 필리핀 농어촌 전화사업에 대한 공로와 필리핀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된 것이다. 이에 앞서 10월 11일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추진중인 한인학교 설립을 위한 건립기금 50만 불을 한인학교 설립추진재단에 전달했다.

均泰일이 언론학회장 취임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로 있는 均泰(均泰 · 사진)일가가 지난 10월14일 서울 경희대 크라운관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3대 회장에 취임했다.

균태일가는 경희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후 78년부터 약 3년간 한국경제신문 기자로 언론계에서 활약하다가 미국으로 유학, 유타주립대를 거쳐 텍사스주립대에서 언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87년 모교인 경희대 교수로 부임했다.

“정성 어린 헌성(獻誠)에 감사 드립니다”

국내의 일가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헌성금, 회비(임원), 장학기금, 종보(宗報)구독료 등의 헌성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손들을 위해 중앙총친회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은 임원들의 회비와 80만 일가들의 헌성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경제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원들의 회비, 일가들의 헌성금과 종보구독료의 헌성이 활성화 된다면 찬란한 청주한씨의 전통을 보존·발전 시키고 자손들을 위해 추진중인 중앙총친회의 여러 역점사업들이 힘을 받게 될 것이며, 한문의 위상을 높이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장학기금 헌성은 우리 청주한씨 명분을 이어갈 자손들의 장학사업에 지원될 가장 이상적이고 생산적이고, 명성을 남길 수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국내의 일가 여러분!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인 장학회관 건립을 위해 장학기금을, 총친회의 활성화인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해 성금, 회비, 종보구독료를 헌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주한씨중앙총친회 · (재)청한장학회

- * 청주한씨중앙총친회 국민은행 009901-04-016841 (회비, 헌성금, 종보비)
- * 청주한씨중앙총친회 국민은행 009901-04-016854 (종보 수단금)
- * (재)청한장학회 국민은행 009-25-0015-377 (장학기금)

올해는 종친회 창립 60주년, 청주한씨보 창간 30주년

琇洙 회장, “영광과 함께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 느껴”

“넓은 인습의 개혁과 청장년들 역할 절실”



청주한씨중앙종친회는 지난 1946년10월30일(음력 10월6

일) 시조세향일에 창립되었으며, 80만 종친의 소식지인 종보 '청주한씨보'는 1976년11월1일 창간되어 올해로 각각 60주년과 30주년을 맞는다. (사진은 중앙종친회 현판-기운데는 마크)

琇洙중앙회장은 두 기념일을 맞아 기념사를 발표, “종친회 창립 60주년과 종보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고 “본인의 회장 재임중에 이와 같은 뜻 깊은 기념일을 맞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 어느때 보다도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는 감회를 피력했다.

▶ 기념사 1면

현수회장은 이어 “지난 60년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으나 역대 회장들과 각급 임원들 그리고 전국의 80만 일가들이 숭조논목의 애종(愛宗)정신으로 협동하고 동참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종친회와 종보를 있게 했다”고 말하고 “우리는

오늘의 60주년을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친회의 부강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수회장은 “인생 60주년을 황혼을 바라보는 연분이지만 종친회와 같이 영속적(永續的)인 조직에서의 60주년을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장학회관과 역사전시관 건립, 인터넷한글대동족보 등 미완(未完)의 총사들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80만 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은 물론 조직화된 역동적인 청장년 후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선도적인 역할이 절실히 요청되며, 젊은 후손들을 위하고 종친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통에만 얽매이지 말고 발전에 장애가 되는 낡은 인습과 관행을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념일을 맞아 국내외 많은 임원들과 일가들로부터 축하사가 담지했다. **▶축사 8 · 9 · 10면**

중앙종친회의 영원한 발전 기원

양명(상임고문)



1946년 우리종친회가 창립된 이후 전반 30년을 제1기로, 후반 30년을 제2기로 나누어 기록해 본다. 초창기에는 格晩, 圭復, 琇錫총현등 여러분이 28년간을 재임하면서 화합과 논목을 도모했다. 이때 청주에서는 시조봉안회를 조직하여 세향을 주관하고 종재(위토)를 관리하면서 전란에 소실된 부농정을 복원하기 위해 전국에 모금운동을 벌리는 등 중앙종친회 역할을 대신하면서 현재의 부농정을 증진했으니 그 업적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鳴求 회장 주도).

제2기에 들어 熙錫회장은 세일재 증진과 시조묘역정화라는 4대유보사업을 전개하여 부려 7년동안에 현재의 재실과 시조묘역을 정화하는 대총사를 이룩했으니 종친회 창설이후 처음사업이었다. 이때에 세향일도 초8일에서 초1일로 변경했으며(1976년) 시조세향을 중앙종친회에서 주관하게 되었다(1983년). 4위설단, 시조유허비 건립도 이때이다(陽壽 회장).

다음 10년은 제6세대동보 발행에 모는 시간을 소요했으니 부려 26권에 3만6천여쪽의 대작품이었다(建洙 회장). 끝으로 10년은 주로 청한장학회 육성에 주력하여 20억 기념조성기념비를 세웠으며 50억 달성을 위해 매진중이다. 종친회 운영기반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꼭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산리 농로(위양로)가 세분 정치인(英洙, 和甲의원, 明淑총리)의 특별명령으로 불원간 완성될 전망이니 가산(駕山)경관은 한층 더 빛나게 되었다(琇洙 회장 주도). 1976년 우리 종보 창간후 어언 30년. 그간 많은 풍랑에 시달리면서 오늘날 30세 장년의 당당한 모습으로 성장했으니 자랑스럽기만 하다. 만일에 우리 종보가 없었던들 우리 종친회의 현재는 기약될 수 없을 것이며, 각종 총사는 이룩되지도 못했을 것이니 최고의 공로상은 당연히 종보가 받아야 할 것이다. (일화 한토파) 종보발행 품의서류결재에 熙錫회장은 한달의 시간이 걸렸으며 끝내는 발행인 등록을 사양했으니(箕命부회장으로 등록) 종보의 계속발행을 믿지않은 것이다. 이를 미루어서 당시의 어려웠던 사정을 짐작하기 바란다. 청주한씨중앙종친회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 모는 총사를 이끌어온 역대 중앙회장과 증진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새 역사 창조에 앞장 서자

陽洙(중앙회고문)



중앙종친회 창립 60주년과 「청주한씨보」 창간 30주년을 축하하며 부강한 발전을 기원한다. 그 동안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많은 사업을 시행하여 큰 업적을 이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가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량역할을 충실히 하여 우리 청주한씨종친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발전을 하게 된 것은 80만 종친 모두의 기쁨이며 자랑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현수회장이 취임한 후 「시조묘역정화사업」을 비롯하여 「인터넷한글대동족보편찬」 「청한장학회」를 설립한지 불과

5년만에 20억이라는 거금을 조성했고, 역사영상록 보급과 전산화를 통한 시·군종친회와의 신속하고 긴밀한 유대강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그 밖에도 많은 업적을 이룩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를 드린다. 종친회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친회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긴요하다 하겠다. 창립 60주년을 계기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80만 일가 모두가 힘을 모아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데 앞장서기 바란다.

우리는 항상 훌륭한 선조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가짐과 우리의 훌륭한 전통을 빛내고 더욱 번창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창립 60주년을 축하합니다

琇洙(명예회장 · 전 외교농상부장관)



중앙종친회 창립 60주년을 축하하면서, 만일 오늘날과 같은 종친회 조직이 없었더라면 우리 80만 일가들이 과연 삼한갑족, 명분거족이라는 명예와 긍지를 갖고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국력이 강대해야 국민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업사회, 정보사회로 발전하면서 집단성원의 사회적, 지리적 이동이 심해지고 일가들간의 이산도 확대됨에 따라 종친회의 조직과 역할이 한층 더 절실했다고 하였습니다.

종친회와 같은 조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 일가들이 어찌 오늘날과 같이 교류하면서 화합하고, 협동하고, 상부상조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선조들의 훌륭한 위업과 유적들을 어떻게 보존, 유지하면서 이를 거족적으로 후손들에게 전승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삼한갑족, 명분거족임을 자임하면서 대성의 씨족임을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종친회라는 근본과 중심이 있었기 때문이며, 특히 여기에는 정보매체인 종보 「청주한씨보」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종친회와 「청주한씨보」의 부강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종사발전에 헌신한 일가들에 감사

希天(삼재관리위원장)



삼재관리위원회를 대표하여 중앙종친회 창립 60주년 및 종보 창간 30주년을 축하하게 되었음을 부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회가 새롭다.

그 동안 갖은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오직 철저한 숭조논목의 정신을 발휘하여 종사발전에 헌신하고 기여해주시는 琇洙회장을 비롯한 역대 중앙회장과 임직원, 각 시·도 전(前) 현직회장장과 모는 일가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드린다. 특히 헌정사상 최초로 우리 한분에서 明淑일가가 여성총리로 탄생하게 된 것은 한분의 큰 자랑이다. 우리 청주한씨는 기조선과 마한을 거쳐 이어온 왕족의 후예로서 고려조와 조선조를 통해 수많은 왕비와 상신(相臣) 장상(將相) 명상(名相) 공신들을 배출한 명분거족으로서, 삼한갑족 동국대성임을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다.

종친회 창립 60주년과 종보창간 30주년을 맞아 중앙종친회의 부강한 발전과 80만 일가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한다.

종친회 기틀 세운 熙錫회장 잊을 수 없어

春植(예빈공파회장)



종친회 창립 60주년, 종보 창간 30주년을 맞아 전국의 일가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며, 지난 60년간 청주한씨종친회를 이끌어온 중앙종친회 역대회장, 각급 지역종친회장, 각 종파회장들과 임원들에게 깊이 감사한다. 지난 수십년간 종친회 임원으로 총사에 참여해오면서, 역대회장중 특히 熙錫회장(8·9·10대, 1974~83)을 잊을 수가 없다. 국회부의장으로 공사(公事)가 바쁜 가운데서도 중앙종친회장을 맡아, 위선사업과 종친간의 친목, 후손들을 위한 복리증진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많은 일가들을 총사에 참여토록 유도했고 종친회 발전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총사에 바치는 희석회장의 열의에 감명을 받아 저 역시 그 뜻을 적극 돕기로 하고 각종 행사에 미력이나마 재정지원도 해왔다. 1978년5월29일 사위설단(2·3·4·5대조) 준공식에서 “중앙종친회 운영기금으로 거액을 회사해 준 부친시종친회 春植회장에게 감사를 드린다”는 희석회장의 찬사는 분에 넘치지만, 60주년을 맞는 오늘 종친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는 생각에서 그 감회가 새롭다.

역대회장들 공적 길이 빛나라

相端(서울시회장)



중앙총친회 창립 갑년(甲年)을 맞아 80만 종현들과 함께 경하한다. 우리나라 280여 씨씨가운데 우리 한씨는 후조선 태조분성왕 기재(箕子)로부터 41세 애왕(哀王)까지 929년, 부강왕에서 8세 원왕(元王)까지 202년, 우량(友諒)의 31세손 지원(智原)까지 약 1,000년, 태위공 시조 란(蘭)으로부터 현재까지 약 1,000년을 합쳐 부려 3,000여년의 세대가 이어져 내려온 동양 최고(最古)의 역사를 가진 명분귀족임을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혈통을 이어받은 전국의 종친들을 규합하여 승조논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格晩(조대 김철총장)일가가 1946년(丙戌) 70만 종현의 뜻을 모아 중앙총친회를 창립, 초대회장에 취임했다. 그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승조논목의 투철한 이념으로 종친들을 이끌어주신 여덟분의 역대 중앙회장들의 공적은 높이 평가되어야 하고 후세에 길이 빛나라라 생각한다. 특히 시조묘역 성역화, 대동6교편찬, 장학재단 설립과 20억원 장학기금을 달성한 陽命, 瑀洙 두분 회장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

장학사업 활성화의 계기 되기를...

昌祐재 일본·(주)마루한 회장



중앙총친회 창립 60년과 청수한씨보 창간 30주년을 맞아 축하와 함께 부강한 발전을 기원한다. 1945년에 고국을 떠난 저의 재외거주기간과 비슷하여 감회가 더욱 깊다. 국내는 물론 외국에 거주하는 일가들까지 당당하게 긍지를 갖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청수한씨'가 삼한갑속이며 명분귀족이라는 배경과 중앙총친회가 60년이란 연륜을 쌓아오면서 전국의 일가들을 결집시키고 종보를 통해 승조논목하게 이끌어 온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점에서 역대 중앙회장들과 각급 종친회 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며, 앞으로는 모든 일가들이 종친회 사업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동참, 위대한 조상의 위업을 지손만에 후손들에게 전승하도록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종친회 창립 60주년을 계기로 승조정신의 고양과 함께 인재 육성을 뒷받침할 장학사업이 80만 전 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

종친회 발전시킨 역대회장에 감사

熙相(재일도교총친회장)



1946년 광복직후의 어려운 시기에 흩어져있던 일가들을 결집하여 종친회를 창립하고 발전시킨 格晩(조대), 圭復, 瑀錫, 熙錫, 陽命, 建洙, 瑀洙 회장 등 역대회장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창립 60주년을 축하한다.

충성과 의리가 아니면 행하지 않고, 대쪽같은 양심을 생명처럼 생활신조로 삼아온 우리 조상들은 큰 자량이며, 위대한 그 피를 이어받은 우리는 행복하다. 그리고 승조상분(尙文)의 투철한 정신은 모본승원(慕本崇源)의 사상관념에서부터 우리나라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다. 나는 항상 밖에서 본 나의 조국이란 관점에서 모든 사물의 이치를 생각한다.

또한 종보 창간 30주년을 맞아 1975년 6월 15일에 창립된 재일도교총친회 종친일동은 축하와 함께 '청수한씨보'가 봉건성을 탈피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제작되어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더욱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

60주년을 회관건립의 계기로 삼자

爽高대구·경북회장



왕족의 후예인 청수한씨를 삼한갑속의 대성답게 번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역대 회장단과 임원들을 비롯하여 종친회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참여하신 일가 여러분들께 종친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깊이 감사를 드리며 종친회의 부강한 발전이 날로 더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중앙총친회 산하조직인 대구·경북총친회는 언제나 충효·덕례·근근·공김(忠孝·德禮·勤謹·恭儉)의 종훈(宗訓)을 전통으로 계승발전 시키고자 뿌리를 회고하느라 뜻을 찾고자 한다. 1968년 5월 12일 경북총친회가 창립된 후 38년이 되는 현재 대구·경북총친회는 지난 1975년 5월 총회의 결의로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설립, 10년이 경과한 1985년 2,700여만원의 모금에 성공하여 마침내 종친회관을 갖게 되었다. 우리 청수한씨 80만 일가들은 올해의 창립 60주년을 계기로 총결기하여 한분 최대의 숙원사업인 '장학회관(중앙총친회관) 건립에 앞장서기를 제창하면서 모든 일가들의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특정 조상의 후손들이 승조논목의 기치아래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종친회이다. 조선조 이후 유교를 숭상하면서 예의 도덕과 조상숭배를 제일의 미덕으로 삼아온 우리의 미풍양속은 종친회를 발전시켜 왔다. 그 중에서도 우리 청수한씨총친회가 가장 활성화된 것은 80만 일가들의 승조정신이 투철하고 일가간의 정이 뜨거웠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종친회가 올해로 환갑을 맞이했다. 60환갑이란 노쇠함이 아니라 성숙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도약을 기약하는 시점이다. 우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한씨 종친회 일가답게 어느면에서나 타의 모범이 되어 우리민족의 역사발전이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출간 30년을 맞이한 성숙한 우리 '청수한씨보'도 총사의 대번지로 그동안 종친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앞으로도 일가들의 끈끈한 정을 더더욱 잃어주시기 바란다. 종보가 시대변천에 따라 그에 맞는 변신을 보여주는 것은 발전하는 모습이라 하겠다. 보다 젊어지는 세대, 그 독자들이 한자도 빼지 않고 읽고 싶어하는 종보로 계속 발전하기를 우리 모두 기원한다.

종보는 사업성공의 길잡이이며 등대

相旭(충남도회장)



종친회 창립 60주년, 종보 창간 30주년을 축하하면서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오늘에 이른 종친회의 발자취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1946년 종친회 창립 후 74년까지는 청원군남일면방서리 종인들의 주도로 지방의 종인들이 세향하루전에 재실에 모여 1박한 후 제례를 봉행할 정도로 종친회의 조직력은 미미한 편이었다. 1974년 熙錫회장이 취임하면서 시조묘역 정화, 재실 증진, 청수한씨사감 발간 등 각종 유적보존사업이 추진되고, 76년 '청수한씨보' 발간, 80년대의 6교대동보 발간 등으로 종친회에 대한 신뢰감이 확산되면서 오늘의 종친회로 발전했다. 특히 창간 30주년을 맞는 종보는 사업성공의 길잡이였으며 등대였다. 종보 발간후부터 시조세향일에 관광버스행렬이 연도를 메웠고 경향각지의 참사인원이 5,000명 이상을 헤아리게 되었으니 승조목속에 크게 기여했다 하겠다.

또한 초기에는 발간비조차 없었던 종보의 오늘이 있기까지 고 泰敏, 碩鎭, 熙錫, 箕命, 建洙 등 회장단과 相高, 仁洙, 漢錫, 鑣朱종친, 瑀洙(현 발행인)회장, 편집인 혹은 수간을 지낸 永燮, 基龍, 益洙, 星燮일가들의 공이 컸음을 밝혀준다.

60환갑은 제도약을 기약하는 시점

泳教전북도회장



특정 조상의 후손들이 승조논목의 기치아래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종친회이다. 조선조 이후 유교를 숭상하면서 예의 도덕과 조상숭배를 제일의 미덕으로 삼아온 우리의 미풍양속은 종친회를 발전시켜 왔다.

그 중에서도 우리 청수한씨총친회가 가장 활성화된 것은 80만 일가들의 승조정신이 투철하고 일가간의 정이 뜨거웠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종친회가 올해로 환갑을 맞이했다. 60환갑이란 노쇠함이 아니라 성숙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도약을 기약하는 시점이다. 우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한씨 종친회 일가답게 어느면에서나 타의 모범이 되어 우리민족의 역사발전이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출간 30년을 맞이한 성숙한 우리 '청수한씨보'도 총사의 대번지로 그동안 종친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앞으로도 일가들의 끈끈한 정을 더더욱 잃어주시기 바란다. 종보가 시대변천에 따라 그에 맞는 변신을 보여주는 것은 발전하는 모습이라 하겠다. 보다 젊어지는 세대, 그 독자들이 한자도 빼지 않고 읽고 싶어하는 종보로 계속 발전하기를 우리 모두 기원한다.

우리종사도 80만 종인의 힘으로 이룬다

益洙문간몽중중 고문



종친회가 발족 60년이고, 종보 창간 30년에 이르러 축하의 뜻을 표하자니 분득 옛 말이 떠오른다. 30而立하고 60而耳順이라고 일찍이 공자가 남긴 말이다. 서른살이 되었을 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예에 따라 독립할 수가 있었고 예순살이 되었을 때는 경험도 쌓여 부엌을 들어도 이상히 여길 것 없고, 저항감도, 놀라움도 없어졌다고 했다.

종친회의 나이 60에 이르는 사이 어려움도 있었으나, 이는 성장과정에 필수적인 경험이고 치러야 했던 우리의 과업이었다고 회상한다. 80이 다 된 내 나이 15세때 아버지를 따라 처음으로 시조묘소에 성묘했을때와 왕릉같은 자국의 묘소를 보면 금석자갈에 새삼 감개가 부량하다. 이렇듯 종사가 발전함에 필경 그 길잡이가 있었으니 바로 종보가 창간되어 30년, 홍보와 계도의 역할을 성실히 해왔다고 찬사를 드린다. 이같이 성심으로 쌓은 연륜이 깊어야 매사 성취의 희열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분명이 사람에게 의해 창조되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인본적 가치라고 했다. 우리종사도 80만 종인의 힘으로 이룬다. 이는 우리의 조상을 우러러 모시고 우리가 화합하며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값진 유산을 남기려 힘이나 부엌을 주저하리요. 오로지 최선을 다 할 따름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래는 전통의 토대 위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창조 또한 전통과의 접점에서 가능한 것이다. 모름지기 선세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나날히 변화하는 현실속에서 우리의 모든 지혜와 성의를 모아 선음에 보응하는 종친회가 되기를 바란다.

선대의 더 많은 유업·유지 발굴되기를

萬馥울산시회장



중앙총친회 창립 60주년 및 종보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또한 종원의 한사람으로서 자축하고자 한다.

그 동안 창립이래 종친회의 집행을 맡아오셨던 종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모든 단체가 그러하겠지만 특히 우리 종친회는 회장을 비롯한 집행을 담당하는 분들의 보다 더 많은 희생과 봉사를 바탕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이다. 우리 종친회는 현재와 같은 지나친 개인주의 및 핵가족 중심주의의 생활에서 자칫 잃어버리고 소홀히 하기쉬운 아름다운 고유의 '효' 및 가족중심의 끈끈히 전승되어온 미풍양속을 보충시켜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종보발간사업을 통해 선대로부터 이어져온 자량함만하고, 계속 발전시켜야 할 유업과 유지를 발굴하여 종원들에게 알려줄 필요도 있다고 본다. 종친회와 종보의 이러한 역할을 아직 참여하고 있지않은 많은 종원들에게 널리 알려 우리 한분 및 종친회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해외종친들도 공지 갖고 뿌리 찾기

日高(미LA종친회장)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모는 종친들과 함께 축하를 보낸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80년대에 8년간의 노력 끝에 방대한 6교대동족보를 완성한 것은 한분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물론 모는 종친들의 뿌리찾기운동의 촉매제가 되어 각 지역종친회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되어 깊이 감사한다. 또한 한씨역사영상록 제작, 시조묘역성역화, 역사관 건립 추진, 장학기금 20억 달성과 장학회관 건립 추진, 인터넷한글대동족보 구축 등 많은 업적을 남겼거나 추진하면서 오늘의 종친회로 발전시킨 瑠洙회장을 비롯한 역대회장들과 임원들, 그리고 모는 종친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종친들도 중앙종친회로부터 큰 영향을 받아 명분 귀족인 청수한씨의 자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긍지를 갖고 뿌리를 찾으며 후세대에겐 훌륭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문의 오늘은 시조부군 · 선대의 음덕

星燮(중무전담부회장)



중앙종친회가 1946년에 창립되어 벌써 환갑을 맞고, 후보가 1976년 11월에 창간한지 30주년을 맞이 내 경하해 마지않는다. 중앙종친회는 그동안 후보를 통해 송중이 나아갈 길을 열고 대소송사를 소개, 후보함은 물론 선조들의 위업을 현양하고 종원들의 미담과 선행을 기사화하여 종풍순화에 앞장서 왔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모는 분야에 진출하여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종친들의 능률한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바로 청수한씨보이고, 우리한분의 오늘이 있게 한 근본은 시조부군을 비롯한 선대들의 음덕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헌신적으로 종부의 대소사에 이바지해 온 역대 회장단과 임원들 그리고 후보 편집주간 등 관계자들은 세일계 승진, 시조탄장지 유희비 수립, 시조묘역 성역화, 6교대동보 반질, 송수보 편찬, 유사보감 반질, 역사영상록(비디오) 보급, 시조묘역 정화사업 등에 크게 기여했으며, 그 노고와 공적은 길이 남을 것이다. 또한 사부해정의 전신화에 의해 광역시와 도 및 시·군·구종친회와의 긴밀한 업무협조와 유대강화를 이부는데 힘을 보탬으로써, 장학회 설립과 기금 20억 달성, 인터넷한글대동족보 편찬사업 등을 위해서도 꾸준한 노력을 해왔다. 우리 종친회의 목적은 송조목축(崇祖睦族)하고, 조상의 위업을 봉찬, 현양하는데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수한씨보'는 자손들간의 소목(昭穆)을 가려 원근계촌(遠近系宗)하고, 상하 항렬을 가려 가히 위 아래의 동종(同宗), 동근(同根)하는 마풍을 살리고, 계대를 모르는 일가들에게 뿌리를 찾아주는 홍보를 하는데 그 역할이 기대된다.

<중앙종친회 내방 일가>

- 순우 서울 송파구
- 璽熙 서울 금천구
- 政植 전북 전주시
- 翕재 서울 강북구
- 相基 경기 수원시
- 元培 서울 중구
- 允준 충북 충주시
- 윤석 경기 군포시
- 상준 서울 노원구
- 鍾天 경기 평택시
- 廣준 서울 용산구
- 炳칠 샌프란시스코
- 기섭 충북 충주시
- 상준 서울 노원구
- 鍾天 경기 평택시
- 규용 경기 김포시
- 재희 서울 노원구
- 靈烈 경기 의왕시
- 春教 경기 양주군
- 靈烈 경기 의왕시
- 星炯 영흥공파
- 永碩 서울 동작구
- 善鍾 전북 김제시
- 三龍 경기 고양시
- 三龍 경기 고양시
- 善鍾 전북 김제시
- 達勳 서울 양천구
- 三龍 경기 고양시
- 相瑞 서울 구로구
- 相瑞 서울 구로구
- 昌錫 인천 남구
- 東億 문정공
- 春淇 전남 여수시
- 明鳳 서울 관악구
- 春淇 전남 여수시
- 康澤 경찰청차장
- 進皓 서울경찰청장
- 必東 서울 동대문
- 敎澤 경기 성남시
- 希天 전남 영광군
- 永泰 서울 용산구
- 潤湖 경기 성남시
- 聖煥 서울 구로구
- 甲東 충북 충주시
- 都淵 서울 송파구
- 基五 서울 성동구
- 相在 전남 고흥군
- 一煥 경기 부천시
- 玉順 일본 오사카
- 順禹 서울 송파구
- 變洙 충남 서천군
- 元勳 서울 광진구
- 楓洙 서울 동대문
- 相元 서울 노원구
- 相基 경기 수원시
- 순우 서울 중랑구
- 龍吉 서울 광진구
- 龍吉 서울 광진구
- 永煥 대전 서구
- 龍吉 서울 광진구
- 權환 서울 동작구
- 永鍾 경기 화성시
- 吉洙 서울 광진구
- 權환 서울 동작구

昇洙일가, 동계올림픽 유치에 동분서주 “IOC 실사 잘 대비한다면 충분히 승산”



지난 해 3월 15일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중앙종친회 명예회장 昇洙일가는 “동계올림픽 유치는 온 국민의 염원이자 국민적 대업이므로 온 국민들이 하나 된 힘과 열정으로 쟁취해야 한다”면서 불철주야 국내외에 걸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0월 18일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유치 성공을 위한 보고대회를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

는 점을 확인했으며, 북핵실험 등으로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정치적 긴장을 스포츠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최근 자크 로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나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다는 조언을 들었는데, 내년 1월 신청파일을 작성, IOC의 실사에 잘 대비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피력했다. 승수일가는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 소치(러시아)와 함께 3파전을 벌이고 있으나 평창이 국민지도도 92%, 잘츠부르크와 소치는 60~70%여서 평창의 가장 강력한 부기는 국민적 지지”라고 자신하면서 온 국민의 총력전을 당부했다. 승수일가는 서울대 교수, 3선 국회의원,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외교통상부총장, 수미대사, 유엔총회 의장 등 국내외의 요직을 역임했다.

▲(사진은 인터넷에서, 승수위원장과 홍보대사로 활약하고 있는 쇼트트랙 메달리스트 안현수, 진선유선수와 함께 찍은 사진)

청장년친목회, 래프팅으로 체력단련



청수한씨 청장년친목회원 25명은 지난 8월 12~13일 이틀동안 강원도 영월지역의 동강에서 래프팅(Rafting)을 즐기면서 체력을 단련하고 화합을 다졌다. 첫날 래프팅을 마친 후 저녁시간에는 친목회 元敎회장의 선창으로 청수한씨종친회와 청장년친목회의 발전을 위한 건배를 다음 저녁식사와 함께 간단한 여흥으로 첫날밤을 보냈다. 이틀째인 13일에도 2개조로 나뉘어 오전 11시부터 약 3시간동안 래프팅을 즐긴 다음 영월지방의 저명한 사진작가 고유서씨의 아내를 받아 그가 지켜냈다는 그 고장의 한반도 지형을 구경하고 기념촬영도 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글·사진 元敎)

종친회 창립 60주년 · 종보 창간 30주년 축하연

12월 8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송년회도 함께 “상품으로 기업인 일가들 생산품 헌성 있기를”

중앙종친회는 종친회 창립 60주년, 청수한씨보 창간 30주년 기념 축하연을 2006 병술년 송년회와 함께 오는 12월 8일(금) 상오 11시 서울시청 앞 프라자호텔별관 그랜드볼룸에서 갖기로 했다.

중앙종친회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난 60년동안 종친회 발전에 몰심양면으로 크게 기여한 유공 일가들에게 감사패 또는 공로패를 수여하는 한편 보다 많은 일가들이 송조노복의 정신으로 송사(宗事)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LCD TV 등 고가의 각종 가전제품과 주방제품을 비롯하여 수 많은 경품과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송년회 앞서 이사회 개최

한편 송년회와 축하연에 앞서 중앙종친회 2006년도 이사회를 개최, 2007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LCD TV 등 푸짐한 상품과 경품 준비 “개인과 지역종친회의 헌성 바랍니다”

瑠洙중앙회장은 “올 병술년은 전국적으로 수산업의 대홍수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북핵실험 등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로, 종친회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나 창립 60주년과 창간 30주년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경품과 상품 등을 푸짐하게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300명 이상의 많은 일가들이 참가하면 비용의 지출도 크게 됨으로, 기업인 일가들께서는 자사 생산제품을 상품으로 헌성(獻誠)해주시기를 바라며, 뜻 있는 일가들과 시·군·구종친회 단위의 헌성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종친회는 1946년 10월 30일(음력 10월 6일) 시조 세향일(1976년 음력 10월 1일로 변경)에 창립되었으며, 「청수한씨보」는 1976년 11월 1일 창간되었다.

창립 60주년의 종친회 역사

종사(宗事)의 효시는 1454년

1946년10월30일(음력 10월 6일 · 1976년부터 음력 10월1일로 변경) 시조태위 세향일에 발족한 중앙종친회는 올해로 창립 60주년, 회갑을 맞는다.

그러나 실질적인 종사(宗事)의 시작은 55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1454년 역분의 선조가 종의(宗議)로 사숙공(思肅公· 휘 濶)의 묘갈(墓碣)을 새로 세우는 일이 종사의 효시(嚆矢)가 된다고 전해진다.

중앙종친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종사의 시원(始源)과 내력, 6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 보는 일은 앞으로의 종사 발전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1617. 정사(丁巳) 초간(初刊) 청주한씨 세보(世譜) 발간
- 1652. 후손 석중(碩中)이 답산 중 사숙공 묘갈을 발견 중호(重護)
- 1704. 갑신재교족보(甲申再校族譜) 발간
- 1746. 휘 용구(諱 用龜) 전라순찰사 화수회 설립(영조 23년)
- 1748. 삼교부진족보(三校戊辰族譜) 발간
- 1789. 사교기유족보(四校己酉族譜) 발간
- 1805. 사숙공 후손 여섯분이 사숙공의 석의(石儀) 갖추다(갑자 순조 4년) 분혜공 휘 강(諱 康), 제학공 휘 사기(諱 謝奇) 분묘 중심(重尋) 기자(箕子) 영정을 평양 인현묘(仁賢廟)에 봉안. 이 영정은 1599년 선조 33년 중국 조맹부가 그린 화상(畫像)을 모사(模寫)한 것임

〈近·現世〉

- 1920. 청주한씨 종약소(宗約所) 발족
- 1924. 오교경신(五校庚申)대동족보 발간
- 1926. 기자 영정 전복 진안 인현동 문성전(文聖殿)에 이안(移安)했으나 1999년 영정 도난 당함
- 1946. 시조태위공 세향일에 중앙종친회 발족(사부실:서울중구다동131) 초대 회장 格晩 취임(1946~1950)
- 1950. 2대 회장 圭復 취임(1950~1954)
- 1954. 3대 회장 琦錫 취임. 4·5·6·7대 회장 연임(1954~1974)
- 1958. 9. 부강왕릉 수호 기성회 발족. 이리시 회장 武相, 김제군 회장 達洙
- 1971. 시조태위공 유업봉찬회 결성
- 1974. 8. 영광군 추모봉(追慕鳳) 삼재(三齋)관리위원회 운영 착수
- 1974. 8. 8대 회장 熙錫 취임. 9·10대 회장 연임(1974~1983)
- 1976. 5. 청주한씨 사감(史鑑) 초판 발행
- 1976. 6. 시조유적보존위원회 창립
- 1976. 9. 15. 청주한씨보(報) 정기간행물로 분화공보부 등록
- 1976. 11. 01. 청주한씨보 창간호 발행
- 1977. 01. 20. 청주한씨 사감 재판 간행
- 1980. 11. 07. 시조묘소 입구 계단 공사 완공(永錫부산종친회장 헌성)
- 1983. 06. 23. 11대 회장 湯命 취임. 12대 회장 연임(1983~1986)
- 1984. 08. 03. 회관건립추진위원회 발족
- 1984. 11. 27. 전남 영광 韓侍郎 유허비 제막식
- 1985. 01. 26. 종훈(宗訓)으로 충효·덕례·근근·공경(忠孝·德禮·勤謹·恭儉) 제정
- 1985. 07. 01. 충북 괴산에 기성전 삼문(箕聖殿 三門)을 중건(重建)하여 평양인현묘에서 모사한 영정 봉안하기로.
- 1985. 11. 01. 청주한씨보 10년사 간행
- 1986. 05. 08. 湯命회장 병가로 瑞愚부회장이 직부대행
- 1986. 11. 25. 부지를 매입하여 시조유허비 건립(충북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
- 1987. 02. 26. 제6교대동족보 간행 종본 발의. 13대 회장 建洙 취임. 14·15대회장 연임(1987~1993)

- 1987~88. 6교대동족보 편찬작업을 위해 사부실 확장 이전 (瑠洙서울시회장이 보증금과 3년간 월세 전액 부담)
- 1988. 10. 22. 부농정(務農亭) 준공식
- 1990. 03. 26. 중앙종친회 사부실 이전(미도파 광화분아파트 709호)
- 1990. 부농정지(務農亭址), 방정(方井), 시조제단비 등 지방문화재 지정
- 1991. 서울시종친회장 瑠洙 취임
- 1992. 03. 03. 중앙종친회 사부실 이전(충로구당수동 세송빌딩 704호)
- 1992. 04. 20. 충북 괴산군 도안면 소재 기성전 삼문 중건
- 1992. 09. 27. 제학공 휘 사기(提學公·諱 謝奇) 제실(祭室) 봉강재(鳳岡齋) 중건 제1차 공사 준공
- 1993. 03. 03. 16대 회장 湯命 취임(1993~1994)
- 1993. 06. 瑠洙서울시회장, 중단된 '서울중보' 속간(續刊)1호 발행
- 1993. 12. 제6교대동족보 발행
- 1993~94. 瑠洙서울시종친회장 최초로 서울 20개 구(區)종친회 결성
- 1993. 12. 제6교대동족보 반질(頒秩) 개시
- 1994. 06. 13. 중앙종친회 사부실 확보, 이전(세종로대우빌딩 복합동602호)
- 1994. 06. 15. 청주한씨보 100호 발행
- 1994. 10. 24. 제6교대동족보 결산총회 개최
- 1995. 02. 28. 17대 회장 瑠洙 취임. 18·19대 회장 연임(1995~2001)
- 1995. 06. 08. 시조묘역 성역화사업 착수, 시조묘역 표석 수립
- 1995. 09. 21. 시조묘역 홍수 피해 복구 완료
- 1997. 08. 29. 대전 뿌리공원에 한씨조각상 수립(대전시종친회 협찬)
- 1997. 10. 세일제 수세식 화장실 및 잔디밭, 조경등, 정원석 등 설치 완료 (瑠洙 중앙회장 2억원 헌성)
- 1998. 07. 25. 청주한씨 유사보감 출간
- 1999. 02. 제6교정묘대동족보 증수보 발행
- 1999. 04. 22. 부농정 표석 수립(부농회 협찬)
- 1999. 10. 29. 청한장학회 재단법인 설립허가 취득
- 1999. 10. 30. 청한장학회 후원회 결성(회장 湯命)
- 2000. 08. 30. 제6교대동족보 증수보편찬위원회 결산총회
- 2000. 09. 시조묘역 진입로 공사를 위한 자금조성(3억5천만원)
- 2001. 02. 27. 20대 회장 英洙 취임(2001~2002)
- 2001. 09. 07. 청주한씨 역사영상록(VIDEO TAPR) 제작 보급 시작
- 2001. 10. 시조묘역 진입 위양로(威襄路) 확장 및 포장공사 완료
- 2002. 05. 21. 英洙회장 사의표명으로 湯命 전 회장을 권한대행으로 선임
- 2003. 02. 27. 21대 회장 瑠洙 취임
- 2003. 08. 26. 임시총회에서 장학회관 건립안 만장일치 의결
- 2003. 11. 11. 瑠洙중앙회장, 종친회 사상 최초로 뉴욕, 워싱턴, LA 등 3개 지역 재미종친회 1주일간 순방
- 2003. 12. 16. 장학회관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 2004. 04. 29. '제7교인터넛한글대동족보' 편찬위원회(위원장 瑠洙) 구성
- 2004. 05. 17. '제7교인터넛한글대동족보' 편찬위원회 수단 접수 개시
- 2005. 11. 02. 시조묘역에 '청한장학기금 20억원 달성 기념비' 건립
- 2005. 11. 02. 시조세향에 여성 최초로 明淑(국회의원)고분이 아현관에 분방
- 2006. 02. 28. 22대 회장 瑠洙 취임 (17, 18, 19, 21대 이어 5연임)
- 2006. 04. 20. 국회의원 明淑일가 국부총리 취임.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총리
- 2006. 10. 30. 중앙종친회 창립 60주년
- 2006. 11. 01. 중보 '청주한씨보' 창간 30주년

현수회장 500만원 헌성

다른 임원들도 100만원 이상씩

종친회 창립 60주년 및 중보 창간 30주년 축하회와 송년회 및 각종 종사에 소요되는 재정을 위해 지난 10월 현수중앙회장이 500만원, 양명상임고분, 예빈윤공파 춘식회장 등 여러 임원들이 각각 100만원 이상의 성금을 헌성했다. 헌성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현수 회장 500만원 ▲양명 상임고분 120만원 ▲춘식 예빈윤공파회장 100만원 ▲규삼 고분 100만원 ▲성룡 부회장 130만원 ▲우선 부회장 100만원

甲洙일가, 경제·문화·환경 등 다방면에서 활약



전 농림부장관 甲洙(중앙종친회 고분)일가는 현재 한국산업경제연구원 회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국제적인 행사로 베풀어지고 있는 광주베엔날레 이사장, 원전(原電)센터부지선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다방면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 광주베엔날레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으며, 행사기간중 국무총리인 明淑일가가 방문, 격려하기도 했다. 전남 나주 출신인 갑수일가는 환경처차관, 경제기획원차관, 농림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축 중앙중친회 창립60주년 청주한씨보 창간 30주년 축

DWMM공법

Deep Wing Mixing Method

연약지반고결층 교반 관입 고화 처리 공법
건교부 신기술 제 38호지정, 특허 제0372922 호



연약지반 보강공사 장면 / LVT



제방보강공사 장면 / Pile Driver

사업 내용

- ▶ 연약지반강화 및 항만지반보강
- ▶ 매립장 침출수 유출방지
- ▶ 제방 보강 및 차수
- ▶ 폐광산 안정화 사업
- ▶ 오염토양 고형화

지적재산권(특허)

- ▶ 제0392485호 연약지반교반 고화처리장비를 탑재한 수륙양용무한궤도차량
- ▶ 제0356344호 폐기물매립장 차수벽의 설치방법
- ▶ 제0447077호 다축 정역회전 교반장치 및 공법
- ▶ 제0453677호 무선송수신을 이용한 각도측정장치 및 그 방법
- ▶ 제0453678호 보링그라우팅용 심도측정장치 및 방법
- ▶ 제0467753호 보링그라우팅 약액주입량 자동제어장치 및 방법
- ▶ 제0467756호 보링그라우팅용 수직도 측정장치 및 방법 등.

(주) 해공환경

회장 한우선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94-14번지, 명성빌딩301호
Tel(02)3474-4837~8 Fax(02) 3471-9744

청주한씨서울특별시 서초구중친회
회 장 韓愚仙(중앙회부회장), 부회장 韓一錫
부회장 韓命洙, 감 사 韓圭完
총 무 韓長變

중앙총친회 2006년도 2차 회장단회의 개최

현수회장 “뒤떨어진 관행 혁파해야만 발전”



10월2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5명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제2차 회장단회의

중앙총친회는 지난 10월24일 상오 11시 서울 시내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5명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제2차 회장단회의를 열고 ①시조 및 4위단 세향 봉행 ②총친회 창립 60주년 및 송보 창간 30주년 기념 축하행사

③2006년도 이사회 및 송년회 개최 ④시조요역 진입도로 미완성부분 마무리 공사 ⑤부장왕릉 관련 소송 진행경과에 관한 안건 등을 상정, 심의했다. 琇珠회장은 경과보고(星燮부회장)에 이어 임

원들을 일일이 소개한 다음 개화사를 통해 ‘총친회 창립 60주년, 송보 창간 30주년의 역사적인 해를 맞아, 오늘날과 같은 총친회의 기반을 구축해준 역대 중앙회장들과 송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각급 총친회의 회장, 임원

들, 그리고 모든 일가들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말하고 ‘총친회에 새로운 기풍과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멀리 100년·200년을 내다보면서 개선과 변화를 꾀하고, 변천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관습이나 관행을 과감하게 혁파해야만 발전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수회장은 특히 ‘올해는 늦 깊은 해이므로 각 지역회장들과 송파회장들께서는 일가들에게 널리 알리고 독려하여 11월21일의 시조세향과 12월8일의 송년회를 겸한 총친회 창립 60주년, 송보 창간 30주년 축하회가 공전(空前)의 대성황을 이루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강왕릉 소송과 관련, 대제(大祭) 봉행봉제를 논의한 끝에 ‘익산팔봉회에서 익산시가 무단철거한 묘소의 석물을 먼저 복원한다면 중앙총친회 차원의 대제 봉행을 계속한다’는 대의견을 모았다.

이어 湯命상임고분은 시조세향에 보다 많은 일가들이 참가하도록 참사인원을 각 도별로 집계하여 송보에 발표하고 1등 50만원, 2등 30만원, 3등 10만원씩 시상하자는 제안을 냈으며, 일한부회장(제진)은 아직도 관작(官爵)이 없는 시조 위양공의 배위(配位) 송씨 할머니에게 관작을 부여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현수회장은 ‘송진 모임에서 논의하여 추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청학동과 삼성궁 기행



삼성궁에서 기념촬영

청학동! 푸른 학이 노닐던 곳이란 전설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푸른 학은 신선이 타고 다니던 학이었다는 전설처럼 일찍이 신라시대 고운 최치원선생이 은거한 후로 수 많은 시인, 문객들이 삼신봉을 중심으로 이곳에 살기좋은 곳 이상향을 세우고저 했던 곳이다. 그래서 청학동은 도인촌으로 불리는데 유불선 삼도합일 경정유도회(儒佛仙三道合一 更正儒道會)라는 교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왔다. 유교를 근간으로 하되 불교, 선도와 동학, 서학을 합일한 이상향을 추구하는 교라는 것이다. 이들은 흰 한복차림에 상투를 틀고 여인들은 쪽지를 지며 처녀총각아이들은 댕기머리를 하고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가 언제나 마을에 낭랑하게 울려 퍼진다. 생활은 농축업으로 자급자족하며, 생필품은 하동장에서 구입해서 쓰고있다. 이렇게 현대와는 거리를 두고 우리의 옛 생활을 지

키며 이상향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젠 청학동도 변해가고 있었다. 지난 가을 필자가 네 번째 찾은 청학동은 옛적과는 달리 음식점, 찻집, 민박집, 여관들이 즐비하게 들어서서 관광객들을 맞이할 뿐 옛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상투 틀고 쪽지는 옛 모습은 노인층에서만 볼 수 있을 뿐, 어린이들은 댕기머리를 잘라버린채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서당 간판이 붙어있는 웅장한 기와집에서는 방학때나 돼야 전국에서 한복공부를 하기위해 모여는 학동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릴거란다. 맨 위쪽 궁궐같은 천제당(天祭堂)의 웅장한 자태는 청학동 관광의 하이라이트라 하겠다. 흰옷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선비들이 관광객들에게 천상의 세계와 같이 살기좋은 이상향이 곧 이곳 청학동에 올 것이라고 열변을 토한다. 우리는 박수로 화답하며 그와 기념촬영을 하

고서야 신비한 돌탑들이 늘어선 길을 따라 내려왔다.

이제 삼성궁으로 가자. 삼신봉 승턱에 신궁처럼 자리잡은 삼성궁은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매표소에서 300m 정도 산길을 휘돌아 올라가니 해발 850m에 자리한 삼성궁 입구에 이른다. ‘만수회복여장군’이란 장승과 우측에 매달린 큰 징이 우리를 맞이한다. 이 징을 세 번 치고 옷깃을 단정히 하면 삿갓 쓴 도포차림의 수자가 나와 간단한 용건을 묻고 길을 안내한다.

대부분을 거쳐 10m 정도의 늪을 지나 들어서니 지리산 자락에 상상외의 넓은 평지위에 테마공원 삼성궁이 펼쳐져있다. 청학동 민속촌 왼편 약 6만평의 산자락, 지반상 목계리 청학동 구역이란다.

1983년 이 고장 출신 한풀선사 강민주씨가 조선시대의 소도를 복원, 민족의 성조인 환인, 환웅, 단군을 모신 배달민족 성전으로 민족의

정통 도맥인 선도를 지키고 신선도를 수행하는 민족의 도장으로 조성해 온 것이다. 중심부에 태극분양의 연못을 비롯 단전호흡을 하는 움집 수많은 맷돌, 절구통, 다듬잇돌 등 우리의 전통생활도구들로 장식된 길과 담장의 전경이 조화를 이룬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솟대이다. 한풀선사가 어렸을 때부터 쌓았다는 이 솟대는 1,000여개에 달하며 계속해서 3,333개까지 쌓을 계획이라고 한다. 이 솟대는 환웅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하늘에 제사 지내던 소도(蘇塗)를 뜻한다. 검은 머리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도포차림의 구렁뱀 얼굴을 한 젊은 수자의 안내로 ‘소도 밭달길’을 따라 올라가니 건국전(殿)에 이른다. 웅장한 전각안에 환인, 환웅, 단군 삼성조(三聖祖)의 영정앞에서 참배한 후 근엄한 자세로 궁내를 돌아보는 관광길은 참으로 꿈길처럼 환상적이었다.

(전북회장 泳教)

문희일가, 노블레스타워 분양 청주한씨에게는 할인 혜택

백마씨엔엘(주) 대표 분회(충청공파 33세손)일가가 도심형 실버타운 ‘노블레스타워’를 분양하면서 청주한씨 일가들에게는 분양계약시 세대당 200만원을 할인(계약전 총친회 추천자에 한함)해주고, 세대당 200만원을 총친회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겠다고 지난 7월4일 중앙총친회에 알려졌다.

‘노블레스타워’는 고려대학교 인근 중앙동 35m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철(6호선 고대역)과 버스노선이 바로 연결되어 있으며, 의료시설(고대병원 등)과 편의시설(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및 공원(홍릉수목원, 개운공원, 북한산)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최적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분양가는 가장 저렴한 평당 1,100만원이며, 세대당 운영선납금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평당 1,300~1,500만원인 다른 실버타운에 비해 동일평형 대비 입주금액이 최대 1억원 가까이 저렴하여 양도시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투자가치까지 갖추고 있다.

또한 1,600평 규모의 다양한 부대시설(수영장, 사우나, 극장, 헬스장, 강당, 노래방, 컴퓨터실, 게스트룸 등)도 구비되어 있으며,

평형은 18평(104세대), 19평(46세대), 22평(78세대), 32평(52세대)형이 있다. 2007년11월에 입주 예정이며 모델하우스는 2호선 잠실종합운동장역(1호선) 인근에 있다. 문의전화는 02-910-6090

전담부회장, 실·부장, 서울구종친회장 간담회

현수회장, “시조세향일 변경 총회 의견 따르겠다”



지난 8월4일 정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바우네식당에서 전담부회장, 실·부장, 서울구종친회장 간담회

중앙총회(회장 琇洙)는 지난 8월4일 정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바우네식당에서 전담부회장, 실·부장, 서울구종친회장이 참석한 오찬간담회를 갖고 병술년 시조세향 봉행을 위한 준비사항 점검 등 종친회의 현안문제를 논의했다.

현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6월9일 중앙회 회장단회의에서 의결된 시조세향일 변경안에 대해 일부 반대의견을 펴는 일가들이 있으나, 주중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학생, 공작자, 자영업자, 회사원 등 보다 많은 젊은 후손들이 참사(參祀)하여 조상의 음덕을 기릴 수 있도록 시조세향일을 일요일이나 공휴일로 변경하는 방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시조세향일 변경 여부는 총회에서 의결해야 합사함”이라고 그 결 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星燮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현수회장은 음력 10월1일의 세향일이 전통이기 때문에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원래는 음력 10월6일이던 세향일을 지난 67년 기석회장 재임시 음력 10월1일로 변경된 사실로 비추어 볼때 전통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더욱이 시조 탄강 일(誕降日)도 아니므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 날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시조세향일을 변경하므로써 한문의 전통을 이어갈 보다 많은 젊은 후손들이 시조세향일에 참석하여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숭조는목하게 할 수만 있다면 미래 지향적인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며, 시조묘역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는 것도 그러한 개혁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시조세향일을 휴일로 변경하려는 것은 청장년층의 보다 많은 참여 위한 방안”

현수회장은 특히 “전래적인 전통이나 미풍양속은 계승발전시켜야 하지만, 침체와 후퇴의 요인이 될 수 있는 폐쇄적인 인습을 시대의 변천에 맞춰 개선해 나가는 것도 후손들이 해야 할 책부이며 발전적인 계승”이라고 전제하고 “이제 기성세대의 고령화, 타계, 와병 등으로 점차 쇠퇴의 기미가 보이는 종친회의 조직을 강화, 활성화하고 한문의 빛나는 전통을 간단(簡斷)없이 면면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장년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직화가 최우선 과제이며, 그 청장년들이 시조묘역에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시조세향일을 변경해 보려는 시도도 그러한 과제의 일환”이라고 역설했다. 현수회장은 또한 “크게는 쇄국(鎖國), 작게는 인습에 대한 집착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침체하게 만들었다는 고금동서의 교훈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종친회 운영을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 종사(宗事)에 있어서도 두개의 가치가 상반될 때에는 비교형량(比較衡量)하여 한문의 발전에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우월적 가치를 취하는 개혁적인 결단이야말로 현재 종친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전국의 각급 종친회의 임원들 뿐 아니라 모는 80만 종원들의 책부”라고 말했다.

또한 현수회장은 중앙회 사무처의 조사자료를 인용, “수원 백씨, 신천 강씨, 순천 박씨, 강릉 박씨, 경주 이씨, 연안 김씨, 능성 구씨 등 수 많은 타성 분중에서도 참사하는 후손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조세향일을 일요일 등 휴일로 하고 있다”고 예시하고 “많은 종친회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바꾸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의 오찬은 琇洙중앙회장이 사비로 집행했다.

“청주한씨보” 30주년 발자취 80만 종친의 소식지로, 화합에도 큰 기여

「청주한씨보」가 11월1일로 창간 30주년을 맞는다. 80만 종친의 소식지로, 화합의 마당으로 소임을 자처하며 고고의 소리를 올린지 30년, 「삼십이립(三十而立)」이라 했는데, 아직도 독립채산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내용면에서도 부실함을 자책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일가들의 적극적인 기고(寄稿)와 협찬(宗報)을 포함해서에 힘입어 도약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하면서, 종보(宗報)가 걸어온 3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 보기로 한다. (편집자)

- ▲1976년11월1일 창간호 발행. 8면 월간. 회장 熙錫, 발행인 겸 편집인 箕命(부회장), 주간 永燮(기획실장). 시조 시향일(時享日)을 음10월6일에서 음10월1일로 변경 공고.
- ▲76년12월10일자 2호부터 4면으로 축소.
- ▲77년03월25일자 제5호부터 주간 공식
- ▲77년06월24일자 7호부터 격월간으로 발행.
- ▲81년10월31일자 33호부터 발행인 箕命, 편집인 基龍(부회장).
- ▲83년08월31일자 44호부터 회장 湯命.
- ▲85년04월30일자 54호 8면 발행. 시조유적보존사업현성자 4,000여명 명단 게재.
- ▲85년06월30일자 55호부터 箕命발행인이 편집인 겸임.
- ▲85년08월31일자 56호부터 주간 永燮(기획실장).
- ▲85년10월31일자 57호 창간 9주년 기념특집으로 16면 발행.
- ▲87년04월30일자 65호부터 회장 建洙.
- ▲88년03월31일자 71호부터 발행인 겸 편집인 相根(부회장).
- ▲93년05월31일자 94호부터 회장 겸 발행인 湯命, 편집인 겸 주간 益洙.
- ▲94년05월31일자 100호 기념 12면 승면 발행.
- ▲95년03월01일자 104호부터 발행인 겸 편집인 琇洙(회장), 주간 星燮(상부이사).
- ▲96년05월01일자 111호부터 8면 체제로 발행.
- ▲98년05월01일자 123호부터 「청주한씨보」가로쓰기 체제로 발행.
- ▲99년09월10일자 1,4,5,8면 컬러면 발행
- ▲00년01월10일자 7월1일자, 11월1일자 1,4,5,8면 컬러면 발행
- ▲01년03월20일자 발행인 겸 편집인 英洙
- ▲01년05월01일자 141호부터 주간 重錫(부회장), 1,4,5,8면 컬러면 발행
- ▲01년11월01일자 144호 1,4,5,8면 컬러면 발행
- ▲02년07월01일자 148호부터 발행인 겸 편집인 湯命
- ▲03년03월20일자 152호부터 발행인 겸 편집인 琇洙, 주간 益洙(부회장)
- ▲03년05월01일자 153호부터 주간 東元(부회장)
- ▲03년 7월28일자 154호부터 편집인 東元(부회장), 주간 萬政(동방뉴스신분수필).
- ▲03년 7월28일자 154호부터 8면중 1,4,5,8면 컬러면으로 발행.
- ▲05년 3월15일자 164호부터 東元 편집인이 주간 겸임
- ▲05년 9월23일자 167호부터 範東일가의 한영인쇄사에서 8면 전면을 컬러로 인쇄.
- ▲06년11월01일자 173 · 174호 합병호 발행(중앙총친회 창립 60주년, 종보 창간 30주년 기념 특집으로 16면 전면을 컬러로 발행)



지난 7·8월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온 국민이 큰 피해를 입는데 이어 짙푸같은 부더위와 열대야까지 겹치 지부하고 힘겨운 여름이었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청한산악회는 산행을 결

에 올라 남매담에서 잠시 휴식한 후 한적한 우회등산로인 천정골로 이어지는 3,4km 3시간 30분의 코스로 하산했다.

계룡산으로, 수락산으로

청한산악회

르지 않고 7월에는 계룡산(845m), 8월에는 수락산(638m)에 올랐다.

7월30일 오전 8시 반 광화문을 출발하여 11시경 충남 공주의 유서 깊은 고찰(古刹) 갑사(甲寺)에 도착한 일행 41명은 곧바로 계룡산 등반

계룡산은 대전시, 공주시, 논산시에 걸쳐있는 충남 계일의 명산으로, 산 능선이 닭벼슬을 머리에 쓴 용의 모습과 흡사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날 일행중 琇洙중앙회장 내외분과 정혜공파 楸泰회장이 천안에서 합류했는데 특히 현수회장 부인께서는 신병으로 불환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의 고대산 산행에 이어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참가하여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8월27일의 수락산 산행은 집결장소인 수락산 전철역에서 시작되었다. 서울 상계동과 중계동, 의정부시, 남양주시에 걸쳐 있는 수락산은 서울의 북쪽 끝, 남쪽으로는 불암산이 연결

되어있다. 41명의 일행중 일부는 계곡에서 더위를 식히고, 일부는 깔딱고개까지 올랐으나 완수하지는 않았다. 수락산은 산 전체가 화강암과 모래로 이루어져 기암, 괴석, 폭포가 많고 나무가 적은 편이나 옥류폭포 등 많은 폭포와 칠성대기암, 불로정약수 등 수락8경은 놓칠 수 없는 경관으로 수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다.

이날 산행에서는 처음으로 참가한 상호(강북도봉구 회장), 명준(동 부회장)일가와 멀리 강화에서 참가한 상훈(참판공)일가가 소개되어 환영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글 星燮, 사진 允東)

www.n-tower.co.kr



一家 실버세대 여러분,

실버타운도 선택의 시대가 왔습니다. 충분히 비교 검토하시고 결정하십시오.

노블레스타워는 자신 있습니다!!

고품격 도심형 실버타운 노블레스타워는 이렇게 다릅니다.

- 1 타 실버타운 대비 거품을 뺀 1,100만원의 적정 분양가를 제시합니다
- 2 입주 시 부담되는 평당 200~300만원의 시설운영선납금이 없습니다
- 3 발코니확장으로 실 사용 전용율이 최고 66%까지 높아집니다
- 4 대형백화점, 종합병원 등 생활, 문화의 혜택이 좋은 도심에 위치합니다
- 5 지하철 6(고대, 월곡역)·4호선(길음역), 버스 등 대중교통이 편리합니다
- 6 신선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대학캠퍼스, 공원 등 산책로가 다양합니다
- 7 대명콘도 평생VIP회원 혜택 등 특화된 서비스로 100% 만족을 실현합니다
- 8 가족사우나, 실내수영장 등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 9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세계 최초 꿈의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 10 의료, 평생교육, 운동치료 등 고려대학교의 전문서비스와 함께 합니다
- 11 위치, 높이, 구조 등 실버세대 체격에 맞게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됩니다
- 12 병원이나 호텔이 아닌 시행사가 직접 성심 성의껏 관리운영합니다

***단지 내 온천 발견 신고 (심도 약 700m)**

- 5월 30일 성북구청 도시개발과 온천 발견 신고
- 6월 14일 성북구청 감사기관 지정 '한국중앙온천연구소'
- 현재 감사기관에서 검사 진행 중



Everyday Happy Day! 모델하우스 오픈 중!

60세부터의 즐거움과 90세이후의 편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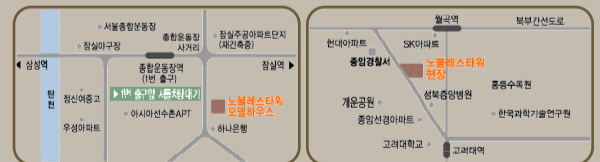
분양문의 021910-6090



※ 본광고물의 정도는 소비자부터 아래를 순서로 보면 더욱 실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블레스타워에는 가족이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 * 세계 최초 첨단 유비쿼터스 시스템 적용
- * 특화된 맞춤 서비스로 100% 만족 실현
- * 고려대학교와 함께 하는 고품격 서비스
- * 실버세대 체격에 맞게 인체공학적으로 설계
- * 지하철 6·4호선, 간선도로 등 편리한 교통 환경
- * 대형백화점 종합병원 등 생활편의시설 인접
- * 홍릉수목원 개운산공원 등 쾌적한 수변환경
- *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시설



총 280세대 | 18py(104세대), 19py(46세대), 22py(78세대), 32py(52세대)

시흥시 정 권리영 중 박마씨연결(주) | 시흥시 권노의 열기 (주) 대명건설 | 지공리리 KB * KB부동산신탁(주) | 부일보통 대한주택보증(주) | 협회시 anmbank | 삼성전자 homevita | 연계병과 고려대학교의료원

清州韓氏 始祖下19世孫 忠靖公 (諱 應자寅자)



始祖下32世孫 | 韓相五 (백마건설회장)



始祖下33世孫 | 韓大熙 (백마건설감사)



始祖下33世孫 | 韓文熙 (백마건설대표)